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木)
本紙夕刊十二面

中央、西南妥協交涉 全面的으로決裂

西南派、蔣氏獨裁排擊을强調

三民主義擁護를主張

【廣東十七日發同盟】中央西南의 妥協交涉은 南岳에서 進行하고 잇는바 西南側이 主張하는것은 胡漢民氏의 遺囑에 잇는것과가티『國民黨의黨是를 遵守하고三民主義를 擁護하고 蔣介石氏의 獨裁覇權과 如한것을 斷乎排擊한다』고 强調하엿기때문에 中央側과 全面的으로 衝突되여 會議는 十四日中에 마치나 決裂되여 李濟琛氏以下 西南派代表는 連袂南下하엿고 中央側代表 何應欽 馮玉祥 宋子文 三氏는 十四日飛行機로 南京에 歸還하고 唐生智 程潛、孫科氏等은한번더 西南側과 最後的交涉을하기爲하야 粵漢線衡陽에 向하엿다 그리고 湖南省主席何鍵氏以下熊式輝、何成濬等은 十四、五兩日에 亘하야 各其南岳에서長沙로 歸還하엿다

宋哲元氏天津에向發

【北平十七日發同盟】冀察政務委員會委員長 宋哲元氏는 北平市長 秦德純氏를 引率하고 十七日午後三時 北平發特別列車로 天津에向하엿다 宋氏의 天津滯在는 一週間豫定인데 天津軍當局과의 間에 目下北中의最重要問題로되여잇는 天津市長 蕭振瀛氏의 辭職과 이에伴하는 後任으로 察哈爾省主席 張自忠氏의 任命及 察哈爾省主席에는 第二十九軍百四十三師長 劉汝明氏의 任命에 關하야 諒解를 求하야 北中重要人事의 最後的決定을지엿다 宋氏는 天津에서 다시濟南에 赴하야 山東省主席 韓復榘를 訪問하고 冀察政權과 山東의 政治及 軍事的 提携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리라고解釋된다

兩廣離間에成功

蔣氏第二次工作着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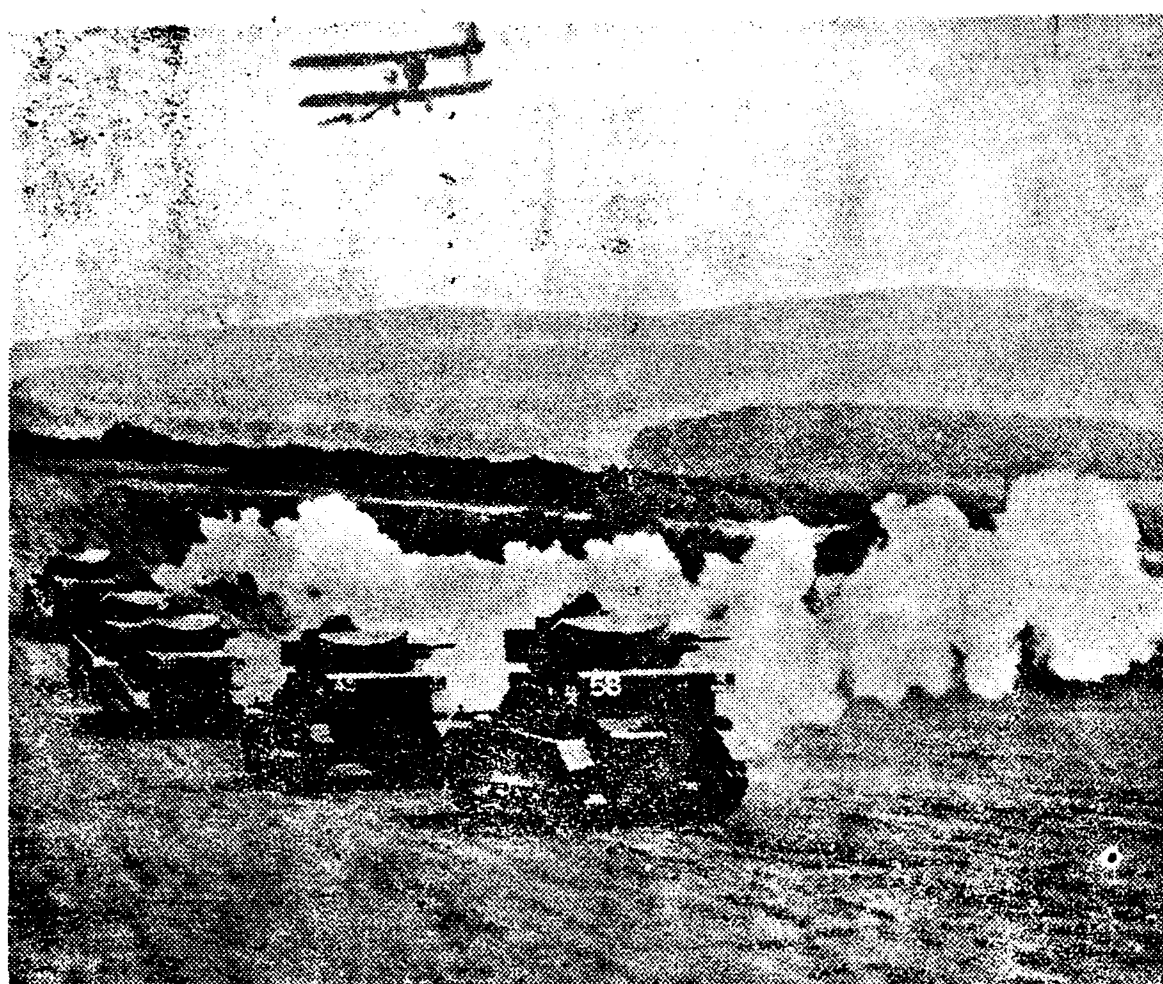
【南京十七日發同盟】蔣介石氏는 廣東의 陳濟棠氏懷柔로 兩廣의 離間에 成功하엿슴으로 이好機에 乘하야 第二次工作으로 西南派의 癌이라고할만한 廣西軍에 對하야 壓迫하기로 決定하고 湖南 貴州에 中央軍을集結하야 武力을 背景으로 廣西壓迫을 畫策하고잇는데 蔣介石氏의 長沙行은 더욱何鍵一派의 灰色派에對하야 得意의 懷柔로서 中央과合作케하고 湖南으로부터 貴州에 亘하야完全히 外廓을 中央에歸屬케하고 西北兩方面에서 着手한軍事工作에 遺憾업기를 期할意圖라고 解釋된다 但廣西軍이 敢然抗爭치안는限 中央은 討伐을開始치안코 二中全體會議를 압두고 絕對有利한地步를 確保하야 廣西를實際的으로 中央의 支配下에 屈伏케할手段을 取할터로 蔣介石氏는 그豫想이서기까지 湖南에留할터이다

蘇聯漁業交涉代表 『스』氏로變更

【莫斯科十七日發同盟】日蘇兩國政府의 漁業條約改訂交涉은 去四月二十六日 蘇聯側에 日本의 回答을 提示한 以來 카즈롭스키極東部長의 病臥로 停頓되여잇든바 蘇聯政府에서는 今回 스토모니아코프外務人民委員會次長을 交涉에 當케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 莫斯科駐箚日本大使館에서는 即時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 右決定에基하야 酒勾代理大使는 十七日午後 蘇聯外務人民委員部에 스토모니야코프次長을 訪問하고 四月二十六日附 蘇聯政府의 提案에對한 日本政府의回答을 더욱排遠한것을 手交하엿다 右回答에對하야 스토모니야코프次長은 後日 回答할旨를約하고 兩代表는 目下兩國間의國交調整에對하야 懇談을遂하엿다

日蘇漁業交涉 將來도樂觀不許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交涉은 暫定協定締結以來 繼續하야 交涉할方針下에 日本政府는 大田駐蘇大使로 하여곰 蘇聯政府를 督促케하고 잇던바 十七日 同大使로부터 外務省에 온 報告에 依하면 蘇聯邦側은 카즈롭스키極東部長이 病은 全快되엇스나 코카사스地方에서 靜養하기로되어 스토모니야코프外務次長으로서 交涉에 當케한다고하고잇스나 今後의 外交交涉에는 만흔 專門的技術問題가 展開될것이므로 實際的으로는 카즈롭스키氏가업시는 交涉을 進展할수업서 當分間 無期延期狀態가 되엿다 이리하야 今年末로서 施行할 漁業條約의 運命에도 徹底的影響을 及하게될터로 日本政府는 蘇聯政府의 交涉遲延策에 對하야 不斷의 注意를 하지안흘수업다고한다



□技術에잇서 世界一이라고 自認하는 步兵重砲三隊의 山間大演習

解散令撤回까지 無期盟休를決議

冀察政權의學生團體解散令에

北平公私大學生激昂

【北平十八日發同盟】十五日에發한 冀察政府公署의 學生團體解散命令에 激昂한 北平公私各大學學生은 十七日午後 燕京大學에서 各大學學生代表會議를 開催하고 四十四大學 七十數名의代表가 協議를 遂한結果 解散命令이 撤回되기까지 無期盟休를 決行하기로 決議하엿다

蕭天津市長辭職코 張察省主席이後任

【北平十七日發同盟】宋哲元氏는 十六日夜 私邸에 第二十九軍首腦部를 召集하야 最高會議를 開催하고 蕭振瀛氏의 天津市長辭任과 그後任問題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會議는 十七日拂曉까지 及하엿는데 十七日午後一時 冀察政務委員會의名義로서 左와如히 正式發令하엿다

天津市長 蕭振瀛
依願免官
察哈爾省主席 張自忠
任天津市長
第二十九軍百四十三師長 劉汝明
任察哈爾省主席

島田農相、省議開催 農林國策樹立

【東京電話同盟】島田農相은 十七日 午前七時十分 東京驛着列車로 東北地方農情視察旅行으로부터 歸京하엿는데 七月上旬까지에 農林國策의 輪廓을 決定할 必要가 잇스므로 同日 午後三時早터 農相官邸에 農林省議를 開하고 農林國策樹立의 第一步를 出發하기로 되엇다。即 島田農相은 今回 旅行에 出發할 前 各局部長에 對하야 農相이 去特別議會에 調查硏究하야 次期議會까지에 提案하기로 約束한 農村根本對策에 關하야 詳細檢討하고 또 議會에서 言明치안흔것으로 今後 農村對策으로 반드시 實現할 問題에 關하야 硏究할것을 命하엿슴으로 各局에서 硏究한 結果 議會에서 農相이 言明한 農業保險、米穀統制、蠶業振興、輸出生絲販賣統制、產組監查機關의擴充、負債整理等의 諸問題에 關하야 一旦 報告할것도 잇다 作成되어잇고 最近은 羊毛國策에 關하야 對策案되어잇스므로 島田農相이 此等諸問題의 綜合에 應하야 如何히 決定할는지 極히 注目되고잇다

綏芬河에서의

日本憲兵行動을 蘇聯側이非難

蘇鐵道從業員에게暴行하엿다고抗議

漁業條約交涉席上

【莫斯科十七日發同盟】蘇聯外務人民委員會次長스토모니야코프氏와 酒勾代理大使와의 間에 行한 十七日 漁業條約改訂交涉에 잇서 스토모니야코프氏는 綏芬河驛에서 日本人憲兵이 蘇聯鐵道從業員에게暴行하엿다고 强辯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現地에서온 報告에 依하면 綏芬河駐屯日本人憲兵은 最近 鐵道業務員에게 不當壓迫을加한 結果 同驛의 鐵道事務는 全然 遮斷되고 나아가서는 歐亞大陸을 連絡하는 直通交通을 阻害할 憂慮가잇슴으로 日本外務當局은 至急駐外官憲에게 不法行爲禁止命令을 發하라

그리고 라스通信社의 報道에 依하면 右申出에 對하야 酒勾代理大使는 即時本國政府에 照會하겟다고 答하고 辭去하엿다한다

英政府全員閣議서 制裁放棄를決定

戰爭終了後의 制裁繼續規定은업다하야

聯盟規約을방패로

【倫敦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全員閣議를 開催하고 볼드윈首相司會下에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善後處置에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席上에서 이든外相은 外交委員會의 決定內容을報告하고 制裁放棄의 不得已한事情을 述하야 左와如히 詳細히說明하엿다

一、聯盟規約에는 戰爭終了後 制裁를 繼續하는 規定이업다 그리고 法律專門家의 意見에 徹하드라도 制裁行動은 專혀 戰爭의勃發을 阻止하고 或은 그終結을 促進하는것에 끈치게할것이라고 解釋되다 即 伊에兩國間에 戰爭은 終結되엿슴으로制裁를 繼續하는 結果 制裁는 純然한膺懲의性質을 帶하게되는것인바 如斯한것은 伊太利政府에對한 敵對行動에 不外하는것으로 聯盟規約의 精神에어긋남이크다

二、歐洲의集團的安全保障을 實現함에는 伊太利政府의 參加를반드시 必要하나 伊太利政府는 制裁가 繼續하는限 絕對協力하지안켓다고 主張함으로 現下의 國際情勢에鑑하야 制裁放棄는 不得已하다

三、從來 伊太利 政府에 對한 方策을 決定치안흔 結果 英國政府의 國際政局에對한 權威는 最近 失墜되엿슴으로 權威를 回復키爲하여도 實는 制裁는 速히放棄하고 現實에即한 國際政局에 徹하야 指導的立場을 確保하여야할것이다

以上이든外相의 說明에對하야 各閣僚로부터 國際政局調整方針等에關하야 質問이잇고 協議前後 二時間에亘하야 結局 制裁放棄에 意見一致되여 左의政策을決定하엿다고確聞한다

一、聯盟理事會乃至 總會의決定을條件으로 伊太利에對한 制裁를 放棄함

但 制裁解除時期及 手續은理事會乃至 總會의決定에依함

一、制裁의撤回에 當하여는 一部分에 限局치말고 金融通商全分野에亘하야 斷交案을 撤回함

이든外相은 十八日下院에서 以上의方針을 闡明하기로 決定하고 閣議는 午後一時散會하엿다

이든外相闡明에 下院大論戰豫想

純理派이든氏問責乎

【倫敦十八日發同盟】이든外相은 閣議決定에 基하야 十八日下院에 臨하야 制裁案放棄方針을闡明할터인데 特히 聯盟改組態度에 對하야 다음과가치 述할것으로 보인다

一、英國政府는 聯盟總會 乃至 理事會의 決定에 基하야 制裁를 撤回하기로 決定하엿다 但 撤回時期및 繼續은 理事會의 決定에따름

一、英國政府는 依然 聯盟支持를 堅持하는데 現下 聯盟機構에는 徹底的改組를 할必要를 認한다

一、英國政府는 終始歐洲平和達成에 努力할터인데 平和確立에는 獨逸政府의 參加를絕對必要로한다 同政府의 主張實情에對하야는 愼重한考慮를加하고 國交調整을期함

右이든外相聲明에 對하야勞働黨首領、保守黨領袖아담스氏等은聯盟原則維持의 純理論을내걸어政府에 肉迫하고다시 이든外相問責에 白熱的 論戰을 展開할것으로 豫想되다 惑星로이드조지氏도 質問通告를하고 잇는데 最後로 볼드윈首相自身이 나려서 國際政局의 實現을說明하야 討論終結을 宣言할모양이다

伊、制裁撤廢後 各國과通商條約締結

【羅馬十八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各國이 制裁行動을 取하는同時 制裁各國과의 通商條約을 一方的으로 廢棄하엿는데 制裁解除後는 全然白紙로 도라가 새로운立場에서 制裁各國과의間에 通商條約을 締結하리라고 解釋되다 伊太利政府는 十七日以上의 方針을 示唆하야左와如히 述하엿다

一、聯盟各國政府는 一九三五年十一月十八日 經濟斷交를 實施한結果 各國은 通商條約을 破棄하고 制裁解除後에도 同條約을 復活치안는다

一、伊太利政府는 全然 새로운 立場에서 制裁各國과의 間通商條約을 締結할 方針인데結局 求償主義를 基調로 通商關係의 調整을 圖하게될것이다

獨逸代表는 過般來 羅馬에赴하야 伊太利政府當局과 協議를進行하고잇는데 아마 列國에앞서 獨伊兩國間에 新通商條約을 締結하게될것이다

伊國은當然視

에國倂合承認을靜觀

【羅馬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가 制裁放棄를 決定한데 對하야伊太利政府當局은 當然한 歸結이라하야 그리欣喜하지안코 더욱 英國政府가 에디오피아帝國을倂合한既定事實을 承認할는지 안할는지 引續하야 靜觀할意向이라고 解釋되다伊太利政府는十七日夜에말하기를

英國政府가 制裁解除에 參加한것은 今日의情勢로보아當然한措置일것이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植民地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支配權容認을 拒否함과 如한것은 諒解하기困難하다 嚴然한 既定事實을度外視하는結果 國際的混亂을 釀成하게될것이다 英國政府의善處를 望하야 마지안는다

英制裁放棄로 危機解消

聯盟事務局의見解

【쥬네부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가 制裁案放棄를 決定하엿다는 報道에對하야 聯盟事務局은 十七日夜 左의意向을 表示하엿다

英國政府가 制裁를 放棄키로 決定한것은 一觸即發의 危機에直面하여잇는 現下國際情勢에鑑하야 不得已한 措置일것이다 制裁를 繼續하면 伊太利政府는 獨逸政府와 盟約을 締結하야 歐洲는 서로對立할 念慮가濃厚함으로 英國政府는 現實을 正視하고 今回의行動을取한것은 實際的이며 또賢明한措置라고 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國際聯盟으로서는伊太利政府의侵略行動을抑制할수업는創立以來처음斷行한 制裁도 失敗된結果 權威가失墜된것은 甚大하다 此際國際聯盟은 어느程度의改組를 斷行하야 更生策을 講究하지안으면 안될것이라고 思惟하나 英國政府는 制裁問題의 一段落을待하야獨逸政府에 聯盟復歸를 慫慂하야 聯盟의强化를 圖하고 聯盟의改組를 斷行하는同時에 로카르노體制에代位할 新安全保障機構에關한 交涉開始를要請하야 歐洲政局의 全面的調整에 進出하게될터이다

小協商國

參謀會議終了

【부카레스트十七日發同盟】小協商國參謀會議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三國首腦部가 參加하야 去十四日以來부카레스트市 루마니아參謀本部에서 開催하고 討議前後 三日을 經過한後十六日 重要協議를 終了하엿다 確聞하면 右協議結果 小協商國은 急速히 相互 堅實한 共同作戰을 講究하야 國際政局의危機에 對處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고 解釋된다

人事・集會

▲兒玉親信氏(株式會社昭和公司專務取締役) 京城支店設置人事次來社
▲金來仲氏(同常務取締役)同上
▲中村伍藏氏(同支配人)同上
▲具昌祖氏(同監查役)同上
▲朴顯植氏(中東學校敎員)十八日午前三時半喪配二十日午後一時諫洞醫專病院에서永訣式

明年度豫算은 積極的으로編成

◇林財務局長談

渡東中이든 林財務局長은 十六日 歸任하엿는데 十二年度新豫算編成과 朝鮮內의 財界諸問題에 關하야 말하엿다

十二年度 豫算은 京釜新線建設案通過로 飛躍的으로 膨脹하엿는데 繼續하야 十二年度는 餘剩金도 大體 前年에 比하야 相當히 增加하야 二千萬圓以上이 될 豫測이 잇스므로 相當히 積極的인 豫算을 編成하고십다 朝鮮의 一般景氣가 好轉한 이때에 이機會를 巧妙히 捕捉하야 모든 方面에 亘하야 事業을 擴充하여야 할줄안다 增稅問題는 아직 確定的成案을 엇지못한모양이다

無盡合同에 關해서는 歸任後 아모 報告도 밧지안햇다 京城業者中에는 反對를 表明하는者도 잇는모양이나 一個人의 立場에서 異見이 나오는것도 當然한줄안다。

다만이를 一般에 波及시키는것은 斷然 排除할것으로 이것으로 國策이 左右되여서는 안된다 總督府로서는 既定方針으로 邁進할 豫定인데 反對가 잇스면 먼저 贊成하는者만으로 斯業의 合理化를圖할생각이다 總督府의 目標는 朝鮮內庶民金融의 改善에 잇서서 現在、自由對立 競爭의 是正을 目標로 삼고잇는것이다 金融機關의 統制問題는 日本內地에서는 相當히 愼重한 工作으로進行中이나 이點은 朝鮮에서는 오히려 一步前進하고잇서서 無盡과 가튼것도 이미着手한 狀態이다

八面鋒

◇十九日 午後三時頃 단二分間의 皆既日蝕을 觀測하고저 東京、京都는 勿論이오 中國、英國、체코、獨逸等地로부터 天文學者、地理學者、氣象學者等이 北海道 僻村으로 群集、雲集。

◇이리하야 오호쯔크海에 面한 北海道海岸 三百粁에 亘한 山地、村落에는 無慮 數百學者와 百餘新聞記者로 때아닌 活氣를 띄웟다고。

◇그러나 그곳에는 한 사람의 朝鮮人 學者도 업는 모양이니 寒心한 일。

◇아인슈타인이 喜壽한 사람인줄만 알어지 果然 그의 學說인 太陽光線이 地球를 向해 오는 途中 다른 天體를 지날때 그引力으로 屈折된다는것이 確實한 與否를 알려는 사람은 업는 모양。

◇朝鮮은 生活의 貧困보다 科學의 貧困。

◇間島共黨被告 十八名에 對한 死刑言渡 上告는 高等法院에서 理由업다고 棄却。

◇朝鮮行刑史上 畫時期的 記錄이 될일。

死刑四十八名筆頭 二十二名上告棄却

兩名은無期懲役 一名十五年、一名三年

間共事件最後審言渡

일이심에서 모다 대량의 사형을내어 조선재판사상 새긔록을지은 간도공산당사건피고 김응수(金應洙)등 이십이명에관한 상고심언도 공판은 십팔일오전열한시 십오분부터 고등법원 형사부법정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대로 다음과가티 상고기각판결을 내리여 김웅수등 열여덜명은 드듸여 원심판결대로 사형이확정되엿다 그리고 차병철(車柄哲) 안응손(安應孫)두명은 무긔징역, 리창서(李昌瑞)는 십오년, 김성손(金成孫)은 삼년징역으로 확정되엿다 (사진은 우상으로부터 고하경 김응수 리종협 김용률 류태순 권태산 김룡필)

死刑十八名

▲金應洙(三四) ▲朴東朔(二八) ▲周現甲(三三) ▲朴金哲(三一) ▲金光默(三一)
▲朴翼燮(三〇) ▲劉泰順(三〇) ▲李東鮮(三一) ▲高河鯨(二七) ▲曺東律(二八)
▲閔昌植(三一) ▲金鳳三(二四) ▲金龍震(二九) ▲李鍾立(二七) ▲金東朔(二七)
▲池蓮浩(三一) ▲權泰山(三三) ▲盧昌浩(二七)

無期懲役二名

▲車柄哲(二六) ▲安應孫(三四) ▲(十五年懲役)李昌瑞(三四) ▲(三年懲役)金成孫(二九) (但以上四名未決通算八百五十日) (號外再錄)

檢擧以來七年餘 三審거처今日에

死刑囚中에는獄死도二名

裁判史上에新記錄

간도공산당사건은 소화오년십이월에 간도총영사관 경찰에검거되야 사백여명이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어오다 그다음 법원예심에 회부되야 소화칠년십이월이십일일에 이백륙십여명이라는 만흔피고가 유죄결정을 밧고 그법원공판에 치안유지법위반 및살인 방화등죄명으로회부되엿다 이리하야 소화팔년십이월 이십일 그법원에서 피고 이백오십일명중 겨우 열여섯명이무죄되고 일곱명이 집행유예판결을 바든외에 사형이십이명을 비롯하야 무긔징역등 모다 중형언도를 바덧다 사형언도를 바든 김응수(金應洙)외 이십이명과 무긔징역 유긔징역 합하야 아홉명모다섯은 한명이 불복공소하야 공소한지 만이개년 만인 소화십년십이월 삼일에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심제 일회 공판이 열리엿다 그사이 사형판결을바든 리성철(李聖澈)최관옥(崔寬玉)두명은 미결중에옥사하고 무긔징역김명원(金明源)등 세명이 공소를취하하야 모다스물여섯명이 공판을바든후 소화십일년 이월이십사일 김응수등 열여덜명은 역시사형 일심에서 사형을 바덧든 허완진(許玩珍) 김금남(金今南)두명은 무긔징역 판결을바덧다 일이심에서 모다 사형판결을 바든 김응수등 열여덜명과 무긔징역 판결을 바든 차병철(車柄哲) 안응손(安應孫)두명과 십오년징역 판결을 바든 김성손(金成孫)등 스물두명만이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하엿든바 마침내 금십팔일에 고등법원에서 전긔한바와가티 상고기각판결이 내리여 소화오년 십이월검거되든때부터 오늘까지 해수로 칠년동안, 공판에 회부된지 오년동안 일반의 주목을 끌러오든 이사건은 드듸여 사형수열여덜명이라는 조선재판사상 첫긔록을짓고 대단원을 매진셈이다

(사진은 방청왓다가 최후의 희망조차 끈힌 로창호 부인(우편)과 김광묵 부인)

被告들不出廷

家族等五十餘名이默默傍聽 劇的場面의言渡刹那

상고심언도이니만큼 법정에는 피고도 출정치안하나 그래도 방청석에는 혹시나감형(減刑)이나 되지안흘가하야 피고 로창호(盧昌浩)부인 함북경성군 어랑면룡강리(鏡城郡漁郎面龍岡里)장명호(張明浩(三〇))녀사와김광묵(金光默)의부인현옥순(玄玉順)(二〇)녀사외 친지십여명과 기타오십여명방청인이모혀섯다재판장의 짤한마듸도 흘렷지안하려고 잠잠히하고잇슬 때 열한시십오분 희두재판장은 피고들의상고는 긔각한다고 판결문을랑독하야 열여덜명의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심언도공판은 겨우삼분만에 폐정되엿다 로창호부인과 김광묵부인은 상고긔각판결이 내리자 얼빠진모양으로 어떠케할줄을몰라 다만 눈물만먹음고 집에돌아갈줄을 모르고 재판소압헤서 서로무어슬 이야기하고잇섯다

軌道車正面衝突 京師生五十名重輕傷

實習次로百八十名이纛島行途中에

今日午後 龍頭驛附近慘變

십팔일오후령시 이십분 경성사범학교보통과 상학년생도와 밋이학년생도 일백칠십팔명을실고 동대문의을떠난 경성궤도주식회사긔동차제십륙호는 룡두(龍頭)역에이르럿슬때에 독섬쪽으로부터 오는화물차와 충돌하야 부상자 오십여명을내어 그부근은 일대수라장을 이루엇다 그부근은 전긔사범학교생도들은 독섬에잇는 그학교실습장으로 실습하러가든차이라는데 일백팔십여명이 긔동차를대절(貸切)하야타고가든관계로 룡두정류장을지나가면서정거를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압헤서 모래를실고 오는화물차와 충돌하게되자 긔동차운전수 최경식(崔慶植)(三〇)는급히 뿌레기를 잡어다녓스나 뿌레기의 고장으로정거가되지못하고 충돌이 된것으로 부상자중에는 빈사자가다섯명이라고하며 오십여명부상자를 일부는 부민병원에 일부는 대학병원식촌(植村)병원 리호(瀨戶)병원에 수용하야 치료를하는중이요 경상자이십여명은 그학교강당에수용하고 응급수당을 가하는중이다

重輕傷者氏名

▲曾光林 ▲渡邊忠彌 ▲吉田薄德 ▲安見和彦 ▲宮原敏郎 ▲松林勉 ▲南宮二 ▲金承祿 ▲木本久滿男 ▲木村俊雄 ▲大島貞久 ▲內海勇藏 ▲伊勢田邦男 ▲池田勉 ▲五十嵐邦雄 ▲有定稔雄 ▲明根 ▲李圭寶 ▲吉田豊 ▲古川仁三 ▲中山貞熙 ▲高見重男 ▲杉山俊英 ▲佐藤喬 ▲佐竹直美 ▲木村莊 ▲北村閑雄 ▲內八重一夫

◇…龍頭町의軌道車衝突現場

國境警備"鐵瓮城"化

飛行場、鐵條網敷設 特別警察隊配置

經費百萬圓—三百警官增員

守備隊轉駐後對策

조선과 만주의국경일대에 주재하는 수비대는 전부 다른곳으로전주(轉駐)식히게되야 이미평북국경일대 수비대는모처로 이주식히엇다 그런데 수비대의 탈퇴에따라 국경경비력이 약하여지므로 경무국에서는 이경비력의 박약과결함을 보충하기위하야 국경일대의 경관을 대증원하게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리하야 국경경비계획에대하야는 이미 평북경찰부에서 구체안을 작성하야 제출하엿는데 경무국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확정안을맨들어 명년도예산에 요구하게되엿다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즉평북일대의 국경에증원할경관수는경부이하 합계삼백십오인으로창성(昌城) 벽동(碧潼) 후창(厚昌) 동흥(東興) 만포(滿浦) 자성(慈城) 초산(楚山) 위원(渭原)등지에특별경비대를 조직하야배치하되 특별경비대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무장을 한다즉 긔관총보병포(步兵砲)조명탄(照明彈) 수류탄(手榴彈)등 근대식병긔를 전부배치하며 일방 국경경비용의 비행과착륙장을 국경일대 수개소에 설비하야 비행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비행긔가 출동하게함은 물론중요지대에는 철조망까지 부설하려는 계획이다 이것을 완성하려면경비가약백만원이필요하다는데 완성되면 국경일대는 수비대가주재할때보다 더 공고한철옹성을차게될것이라는데 수비대가철퇴함에대하야는 군부와 경찰경비긔관활동에대한 량해도잇스므로 실현성이 충분히잇다한다

감질만내인甘雨

※※※長安사람들五分間滿悅※※※

지리한 가뭄으로 인하야 경향을물론하고 인심은 극도로 소동되고잇는동시 애꾸진하날만 처다보고 올라가서 세민층의 수미(愁眉)를 펴지못하게하여 오든중 뜻밧게 십팔일아츰 열한시가량서부터 한줄기의 소나기가 보기조케 퍼부엇다 그러나 단비로맛든 빗줄기가 시작되지 오분을 지나지 못해서 바로스럼!되고말엇다 그래서 얼마쯤 펴젓든시민의 눈살도 다시 찌프려지고 만것이다。 이나릴듯 나릴듯 하게 감질만내이고 좀처럼 나릴줄 모르는 변덕구럭이비에대하야 경성측후소로 타진을해보건대 오늘서울의비는 이 이상더 안내릴것이오 또 근긔지방가튼데도 아직가태서는 예측할수업다한즉 그다지도 목마르게 긔대리든 단비의꿈은 결국 영구히 깨여지고 말것인가? —

平壤張富豪强制收容

【平壤支局電話】평양지방법원검사국삼본(杉本)검사는 십육일부내차관리(叉貫里)오십일번지장동환(張東桓)(五〇)을 구인하야 강제수용을 하는동시에 가택수색하야 정체모를인장수백개를압수하고 방금문서위조행사 사기횡령 배임등죄목으로 취조를하는중인데 전기장의 현재직업은 고리대금업으로 불과십여년사이에 오십만원재산을 모하현재는 굴지하는부호로 그죄상에 잇서서는 대개토지가옥가튼것을 고리로잡엇다가 불법으로넘겨먹은것이 대부분으로 방금평양시중에서 맹렬히떠들고잇는 서성리(西城里)기림리(箕林里) 방면의 토지차지료문제도 전부 이자를중심으로된 문제라고하며 현재드러난 죄상만 이백여건이되고 피해인원은 이천여명에 달할모양이라고한다 검사의 취조가 끗나는대로 곳 예심에 넘길모양이라고한다

浪說퍼친者 三名拘留處分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문둥이에대한 헛소문을 전한 사람세명을 십칠일에 또붓잡아다가 각기구류십륙일에 처분하엿다 그세명은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로동자 박정히(朴丁喜)(三〇)와 시내중림정(中林町)이백사십일번지로동자 윤윤봉(尹允鳳)(三〇)과시내공덕정(孔德町)삼백사십이번지로동자 백경순(白景順)(三〇)등세명으로 그들은 여러사람들이만히 모힌곳에서 문둥이가 아이를 꾀여갓다는 허무한 이야기를 하엿기때문에붓잡힌것이라한다

全朝鮮蹴球大會

【安城】안성체우구락부 주최인 전선 축구대회 (安城體友俱樂部主催全鮮蹴球大會)는래유월 이십일일 안성공보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데 전조선대회이니만큼참가단체도 만흘듯하야 우승긔와 여비십오원을 부담한다고한다

注文詐欺犯

시내종로서에 십칠일오후에 부내영등포정(永登浦町)오십팔번지에 묵고잇든 자동차운전수 김만출(金萬出)(二〇)이라는 사긔범이 체포되엿는데 그는 작년말부터 시내각상점에서 만흔상품을 주문하여가지고 려관이나 혹은 부자집으로 배달해달라고하고 그문전에 기다리고잇다가 다른물건 더가저오라고 한다음 물건을가지고 도망하여버리는 수단으로 전후 십여건의 사긔를한것이라고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天氣子報

槪況 七三六粍의 優勢한低氣壓은 樺太로 東行하고잇고 東支那海에도 溺한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北支那海와日本南東海上에 七六〇미리를보히며 半島는 其中間에잇서 氣壓의傾斜가 좀不安定하다 北滿은雨晴、南滿、朝鮮及日本內地는曇 樺太는 風雨가甚하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림이 엇다 흐렷다하고 來日도갓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
同 最低 一九度九
今朝 最低 二〇度九
今日 正午 二四度五

運動競技

高麗陸上協會 事業案決定

高麗陸上競技協會의 今年度事業案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한다
一、四月二十六日 第四回全朝鮮풀마라손 競技大會後援
一、七月四日 第三回全朝鮮老童陸上競技大會 主催
一、九月中旬 第一回全京城市內一週繼走競技大會主催
一、十月中旬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後援
一、昭和十一年三月下旬 第八回京永斷郊競技大會主催

普專蹴球團 東北學院과對戰

第二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는明十九、廿、廿一日의 三日間 東京戶山學校球場에서 擧行할터인데 朝鮮代表普專軍은 第一回戰에서 東北代表의東北學院과對戰케되엿다
▲十九日第一回戰=普成專門(朝鮮代表)對東北學院蹴球團(東北代表)午後三時半
▲廿日準決勝=前日勝者對關西學院(關西代表)午後二時 名古屋藥專(中部代表) 對慶應BRB(關東代表)午後四時
▲廿一日 決勝戰=午後二時半

大邱醫專蹴球部來京

【大邱】大邱醫專生아式蹴球部에서는 朴泰煥氏引率下에 選手白岩外十二名一行은 來十九日午後二時五十分 最特急列車로 大邱를出發하야 京城方面에遠征한다는바 遠征日程及選手氏名은다음과갓다고한다
六月二十日(土) 세부란스醫專
同二十一日(日) 京城醫專
同二十二日(月) 京城藥專
同二十三日(火) 水原高農
◇選手氏名
白鄭黃李鄭朴許金李裴李姜崔
金南仲燦二夏昌珠柱致永光小在
壽洙協甫德潤烈泰傑道源之圭

明大野球各地轉戰

來征中의 明大野球團은 京城에서의 試合을 마치고다음과가튼 日程으로 朝鮮內各地를巡戰하기로되엿다
◇十九日(仁川)對京電第二回戰
◇廿日(釜山)對日鐵
◇廿一日(平壤)對平鐵
◇廿二日(同)對平實
◇廿三日(新義州)對新義州

職業野球戰日程

朝新招聘의 東京세네타스及大阪타이거-스兩職業團野球戰은廿廿一兩日間 京城球場에서 다음과가튼 日程아래 擧行하기로되엿다
◇廿日(土)午後二時세네타-스對타이거-스第一回戰 同午後四時세네타-스對全京城第一回戰
◇廿一日(日)午後一時타이거-스對세네타-스第二回戰 午後四時타이거-스對全京城

新刊 朝鮮社會史讀本 李淸源著 改訂版出來

新刊 支那革命論民族問題 스타-린著 高山、澤田外二名譯 四六判上製 五五〇頁美裝 定價一圓五十錢 送十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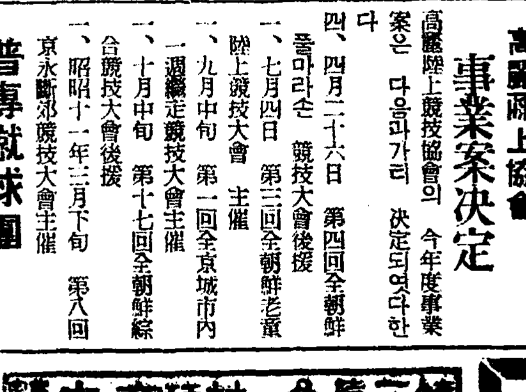
獨占資本帝國主義 라비도스著 橋本弘毅譯 四六判美裝四〇〇頁 價一·三〇 稅·〇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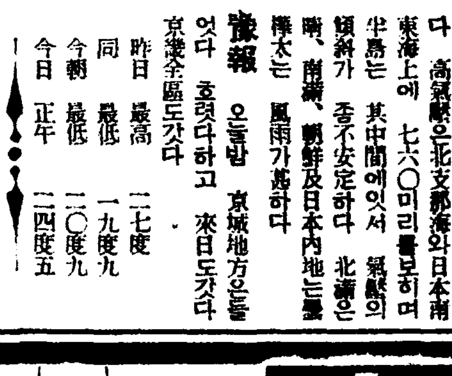
近代帝國主義論 프레브스 리-그編 四六判上製四〇〇頁 價一·五〇 稅·一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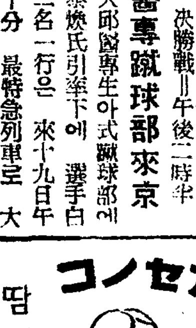
●發兌 東京市神田區美土代町四番地 白揚社 振替東京二五四〇〇番 (電話神田二一八五)

당채색 (商報送呈) 京城府鐘路二丁目 德世洋行

文化리리얀 뜬사실 불실 재색 끈실 누비 란 봉 사 네 이 서 퍼 대 처 기 (商報進呈)
其他百般手藝製造 卸小賣 黃海道載寧邑菊花里 文化堂營業部 振替京城二五二四三番







朝報案內 女給募集 時自午後一時至七時 本人來談 長谷川町 빠-란 電話本局一八七九番

리리얀 뜬사실 끈색실

好職業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恩給 五年分以上最高 借換歡迎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星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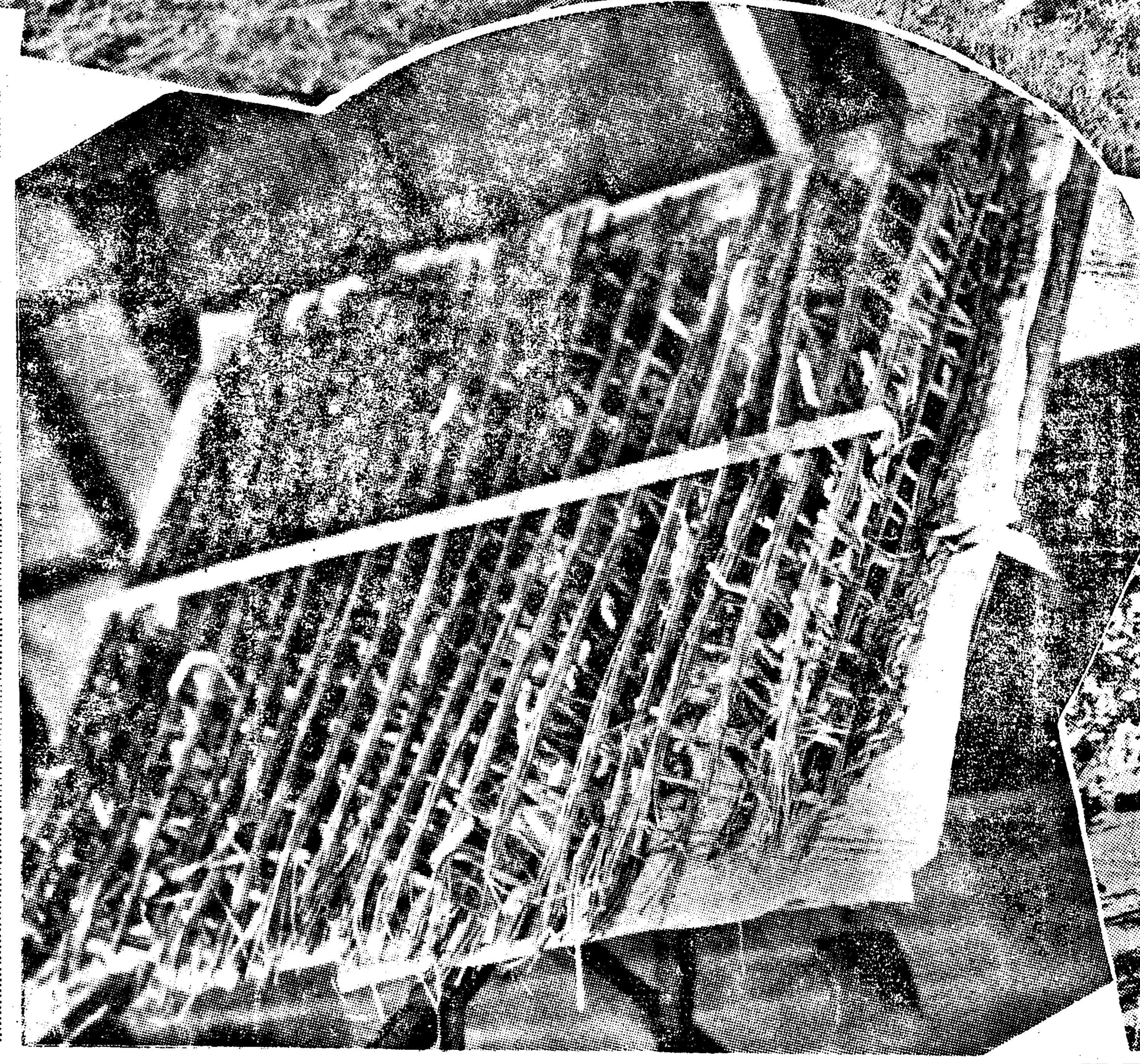
土地賣却公告 京城府安國町百七十五番地內 昭和十一年六月 李王職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產地—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七尺) 一間半(十尺五寸) 二間(十四尺)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李朝五百年以來皇室封山으로禁養해오던곳인데自今三十年前부터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指定이된以後森伐을保護해온關係로樹齡은平均三百年이나되는松木으로柾目이緻密하고成長이良好하야赤味가多量하기때문에腐敗脂堪은勿論光澤이佳良함으로細工用建築用材建具用材化粧用材土木用材로三十餘年前부터日本內地에移出되고잇엇으나今年부터는數量이적음으로鮮內願買者諸位께廉價로供給코저하오며現今約三百萬才을高城驛頭에着着上陸시키는途中에잇아오이勿失此機하시고多數注文하여수심을敬要하나이다注文規定은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迅速注文에酬應하오며遠處로부터의注文은적어도壹貨車以上을單位로하고代金의二割을契約金으로밧겟읍니다
本店 江原道高城驛前 善益木材商會
同 協和製材所
京城販賣所 京城府孝悌町二九七番地 電話光化門二六一六番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五番) 電話龍山五一二二番

矢野テント商會 大阪市西區日吉橋北詰

南京虫에 아-스

今日의農家



【上段右와左】六十年以來의 酷甚한 旱魃이라 이지음도 호리기만하고 감질의 비는 나리지 안허 農家에서는 원망스러운 한울만 처다보고잇다 비라고는 몃칠前에 新義州에 나린것을 내놋코는 全朝鮮을 通하야 물것이업서 本畓에 물은 마르고 모판조차 시드러가나 모심을 일이 寒心하다 때를 놋치면 가을에 무엇을 바랄고 땀을 흘려가며 물을 퍼서 논바닥을 자작 자작 저치고 그래도 모라고 심는 農民의 心情이 가련하다。

【中段右와左】지난 겨울은 왜 그리 치웟든고 게다가 눈조차 적게와서 헐버슨 보리는 얼어죽을 지경이엇다 그나 그뿐인가 겨우 겨울을 치르고나니 원수의 비는 오지안허 이번엔 타서죽을 지경으로 二割이 減收되느니 三割이 減收되느니 떠들고잇다 굼주려 바라든 보리고개는 넘어가려하건만 얼마나 타작할수잇슬고 그나마 비어 입에 풀칠을 하여볼가。

【下段右】가물은 果樹에도 조치못하다 이지음가티 가물어서는 樹勢는 弱하야지고 病虫害에 걸리기쉽다 特히 진드물은 가물을 타고 繁盛하다 이를 徹底히 驅除하지안흐면 뜻하지안흔 損害를 입게된다 藥劑撒布를 게을리마러 가을에 充實한 果實을 엇도록 할것이다

【下段左】今年 春蠶掃立은 昨年에 比하야 六分가량이 느럿고 올봄의 가물은 蠶兒發育에는 오히려 조와다할지라도 지난 겨울의 酷寒으로 桑發芽가 조치못하야 뽕이 不足하다는 소리가 놉다 이리하야 農家副業의 大宗 養蠶도 조흔 成績은 바랄수업스나 多幸히 곳치 갑시 例年보다 빗싸서 이에 한줄기의 希望을 붓치고잇다 어서 곳치를 따서 파랏스면 돈푼이나 만저볼러인데 南部에는 벌서 나도는곳도 잇지만 中部以北은 한창 누에를 올리고잇다。

夏の憂鬱(ゆううつ)は 醜いニキビや 吹出物、脂肌 いつも若肌を 保つ秘訣は？

お肌の荒れる時！

장마때부터盛夏까지의發汗時에는何如튼、살결이거츨어서땀과티끌때문에醜한여드름、부름、기미、죽은깨等이만허서化粧에는적지안흔苦心을하는것이常例입니다

惡いクリームは？

이러한境遇에조치안흔크림을바르면一層살결의新陳代謝가나빼저서크림티가생기는等살결을害하지만東洋第一品인레ー도구레ー무를쓰시면絶對安心입니다。

活々した若肌に！

레ー도구레ー무는皮膚深部에浸入하야살결의榮養이되여땀과티끌의汚濁을깨끗이除去하고皮膚의生活力을昂進식혀여드름、부름、잔주름、기미等을깨끗이解消하야살결을아름답고潤澤하게潑剌한若肌를創造하야比할때업는效果가잇습니다、

산뜻하게녹아드러若肌를만드는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우리 역시 비오길 고대하오만!—

뚱뚱보가 변하야 입버지는몸맵시

몸에해업고 되려 젊어지는법

—음식물관게와운동

미국 뉴육시메트를폴리탄』 가극장(歌劇場)에서 아조 인끼가 노파잇는 『마리온·탈레』는 십년전 처음으로 나올때는 뚱개가 일백삼십폰드엿스나 십년후 오늘에 이르러는 이십오폰드로 줄엇습니다. 그래서 열人살이란 나히를 더 먹는 동안에 몸으로는 아니 얼골이라든지 살人갈이라든지까지도 도리어 열살쯤 더 젊어진 폭이올시다. 그에게는 그자신의 비밀한 방법이 잇서서 꼭 그방법대로 해왓다합니다. 살찐 안악네의 걱정을 덜기 위하야 그 비밀한 방법을 이자리에서 공개하야 버리기로합니다.

음식먹는방법

몬저 아침에는 실과집에 한따 오렌지, 레몬, 포도등속을 석거서 마시고 삼십분쯤지난뒤 크림이나 사탕을 너흔것을 마시는데 크림과 사탕을 결코 한께먹자는 안습니다. 하여튼 오정에는 이것뿐으로 지냄니다. 정하 배가 고플때만 빼려, 밀크나 토마토집을한잔쯤 먹습니다. 나제는 야채시간으로 정해노코 야채만먹습니다. 신선한 야채가 광물질(鑛物質)이나 비타민을만히 포함하고 잇는까닭으로 몸에 조타는 것은두말할것도 업습니다. 그런데 야채도 간단하게 차리어별로이것 저것만히 넛는것은 재미업습니다. 그저 레몬집두 숫갈, 오리브기름 한숫갈, 소금과꿀을 조금씩 칠뿐입니다. 이러케 오후까지 견듸자면 누구나 배가 고풀것이 아닙니까? 그때가서는 오렌지집에다가 달갈을 잘 석거서 자시는 것이 어떳습니까? 저녁밥상은 아모래도 좀 번화하게 됩니다. 즉 파인애플과포도풋스·살라다와 양의고기두점과 그리피스와 구운등금과 그리고 맨끄트로 커피 차 한잔입니다. 하로종일이만큼만 먹으면 굶어 죽지 안는것은 물론 영양이 충분할 것입니다. 거긔다가다시 근육을 젊게하기 위하야 운동을 합니다.

(一) 막대기를 쥐고 발꼬락끄트로서서 몸을 쪽뻗으면서 『하나 둘 셋 넷』하고 열번가량 숨을 쉽니다

(二) 메듸신, 뽈을 벽에다가 딱 따린뒤 그것이공중으로 튀어 오를때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깨를 등뒤로 넘기게 되야자세가 고와집니다.

(三) 두발을 맛부치고몸을 꼭 뻣뻣 그리 힘잇게 지팡고 오른쪽을 오른편으로 휘엇다가 다시 바른편으로 휘엇다가 엽번을 굴절운동(屈伸運動)을 해합니다 그것은 상반신을 고로게 하고 또 가늘게 하는데 퍽 효과가 잇는 운동입니다.

(四)자전차를한 십분씩 타면 넓적다리가 굿세고 또 단단해지고 자전차를 타다가 바퀴를 번쩍들어 공중제이로 한바퀴 돌면 허리께와 가슴께를 아름답게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만 실행한다면 얼굴이라든지 살人갈이 고와지는것은 물론이요 몸스집은 고만 떡사람가리 줄어듭니다. 그실례로 마리온·탈레양의 뚱깨가 오늘의일로 마음엇다는 것만 보아도알수 잇습니다.

美容室閑話 향수의매력

吳淑根

또 이것은 향료(香料)와 부터다나는 이약이입니다. 옛날히랍서욱아데네가 『스팔타』군에게 포위를 당하얏슬때에 무서운전염병까지 돌앗습니다. 이전염병은 그전에도 감금저중해변(地中海邊)을 엄습한일이잇섯는데 애천응에『에듸오피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애굽(埃及)과『리비아』를 거처서 다시파사(波斯)의 통치하(統治下)에 잇든 아세아대륙을 휩쓸다십히한 참담한 형세엿습니다. 밧갓으로는 일희떼가튼 『스팔타』군의 공격을받고, 안에서는 이러한 두려운 역병(疫病)의 위협아래에 잇는『아데네』성이야 말로 생지옥(生地獄)그대로엿습니다. 이때에 향료(香料)와 방향성 식물(芳香性植物)의 연긔를 피여, 이전염병의 박멸을꾀한이가, 후세에 의성(醫聖)의존칭을밧는『피포쿠라테스』그이엿답니다.

그이는『아데네』전시가도처에 향나무를 싸노코불을 집히게할뿐더러, 향긔잇는 꼿다발을집집마다대문에 달게하고, 또항독제(抗毒劑)를 뿌리게한결과, 병은 차차로물러갓다고합니다.

×

그후중세긔(中世紀)에 와서도전염병 류행긔(流行期)에향나무를 피운풍속이잇고, 근세에 뿔란서 어느지방에서는, 유심히 향료용(香料用)화초를 만히재배하는데 그곳에는 폐병(肺病)환자가 하나도 업는것을보면 공긔중에떠도는 화초의향긔속에 일종의살균성(殺菌性)이 잇는것이라고하얏습니다. 또 한번은 영국론돈과 파리(巴里)에 호렬자(虎列剌)가 돌앗슬때 향료장사와 향료만드는직공중에서는 한사람도 환자가 아니낫다고 합니다.

호흡긔병(呼吸器病)에 휘발성향료(揮發性香料)가 효험잇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바로 블란서허레스라는 섬은 폐병환자를 보내면 거게 성적이 량호하다는데 이섬에잇는 료양소(療養所)는 사방이 화초재배지로 둘러싸여서 섬전체가 향긔에 파뭇처잇습니다. 장미(薔薇)삼색근(三色菫)헬리오트로—프조개풀, 박하(薄荷) 수선(水仙)『히아신쓰』등 향긔를 내뿜기는 화원이 여러마일을 뻣치잇서서 이섬으로 건너가는 환자들은 멀리 해상에서부터 발서그 향긔가 폐(肺)속으로 숨여드는듯하답니다.

우리나라 해주(海州)료양소와 소록도(小鹿島)리병환자수용소에 십리화단(十里花壇)을 싸하 그들을 위로하고 갱생식힐 천수관음(千手觀音)은 아니계신가?

家庭齒科醫學

세브란스病院 金喆庸

問 애기들의 치통으로 고생할때 엇저면 조흘까요

答 어린아해나 어른들이나갈작이 치통으로 고생하는것을볼수잇습니다 그때에는 위선 미지근한물 한곱보에다 소—다(重曹)를 너어서 녹힌다음 양치를 하도록하고 그다음에 가장 몹시아픈 충치구녕에 끼인것을 깨끗이 빼여내인다음 또한번 양치하면 얼마간 진통(鎭痛)이 될것입니다

問 급한치통에 한수약(寒水)외에는 다른 약재(藥劑)가업습니까

答 조고마하게 솜을 뭉쳐서(小綿球)박하유(薄荷油)에 적신다음 충치구녕에 끼여두시요 박하유는 일반가정에 상비약(常備藥)으로 사두심이조켓습니다

問 치과의사(齒科醫師)가 충치에 사용하는약은 일반으로가정에 상비(常備)할수업습니가

答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진정약(鎭靜藥)은 대개가 극약(劇藥)임으로 극약법(劇藥法)에 의하야 일반가정에서 사용함을 금(禁)합니다 박하유(薄荷油)나혹은 정향유(丁香油)를 사용하셔도 효력(效力)이 잇습니다

童話 황소죽이고 재판

劉一千

옛날 한고을에 꿩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살어 이섯습니다 이사람은 날이날마다 꿩사냥 하는것을 일삼엇습니다 하로에도 꿩 몃마리씩 잡어서 육식을맨드러먹고 그날그날 안락한 생활을 게속하엿습니다 하로는 자긔가 놀—사랑하는 매를 팔뚝에 바처들고 꿩사냥의 길을 떠낫습니다 그런데 이곱짜 저습사이로 왼종일 도라다녀도 꿩한머리 만나지 못하여서 할수업시 자긔집에서 길으는 꺼동이를 압세우고 집으로 돌아 오게 되엿습니다 이사람은 사냥갓다 꿩한마리도 잡지못하기는 오날이 처음 이라고 자긔혼자 투덜거리면서 한걸음 두걸음밟길을 옴겻습니다 얼마 아니되여 큰시내 가에 이르러 나무 다리를건느게 되엿습니다 그런데건너가다가보니 황소 한마리를 몰고자긔 건너가는 나무다리를 마조향하여 건너오는 사람이 보엿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조 건너가고 건너오든 두 사람은 나무다리 한가운데에서 맛나게 되엇습니다 뚜박게팔뚝에 안저 얌전한태도로두눈을 둥그러케 뜨고 사방을 살펴 보든 매는 황소란 즘생을 처음 보게되니 그만 놀나고 겁나서 날개를 힘잇게 펴들고 팔뚝에서 떨어저 날어섯습니다 잇때에 매의 꼬리끄테 달린 방울이 딸낭딸낭 울엇습니다 방울 소리를 듯고 이거동을 본 황소는 그만 도로혀 놀나면서 다리 우에서 떨어저, 물속에 빠저 죽어버렷습니다 황소를몰고 건너 오든사람은 황소죽은것이 몹시 원통하여서 그만 그자리에서 매의 님자를 몹시 꾸짓고나서 꿩사냥하든 그 매를빼아서 가지고 가버렷습니다 꿩 산양하든 사람은 자긔사랑하든 매를 황소님자에게 빼앗기우고 빼업시 깔둥이를 다리고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그러나 어느사람이 올켓는지? 황소님자는 자긔집에 가나서 그고을 님금님께 그사실을 저저히 고해바첫습니다 그러나 님금님인들 이사실을 엇지 판결하겟습니까? 꿩사냥하든 사람은 자긔사랑하든 매를 빼앗기운 일이원통하여 수심에못처잇는데 하로는 님금님의 라졸이와서 매를빼앗긴사람을 붓잡아갓습니다 이사람은님금님의 명령을 거스릴수 업서서 님금님 아페 가서 머리를 숙으렷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함부로 자긔의매를 빼아서간 황소님자도 역시 님금님 아페 머리를 숙으리고 잇섯다 룡상에 안지서서 바라보고 게시든 님금님은 두사람에게사실을 물어보섯습니다 황소님자는 역바르게 매님자의 매가 날기에 자긔 황소가 물속에 떨어저 죽어 버렷다고 먼저대답 하엿습니다 룡상에 안저 이말을 듯고 게시든 님금님은 인제 판결을하시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이판결을 엇더케 햇겟습니까? 님금님은 판결을내리시기를 『까마귀 날어나자 배떠러진다는 말은 녯적부터 지금까지 내려오지만은 매가 날자 황소떨어젓다는 말은 녯적은 물론하고 지금까지 듯지 못하엿스니 누가올코 누가글튼지 아지못하겟스니 너의 두사람중에 누가올코 누가글트다고 말할수업다』 이자리에서 꿩사냥 하든 사람은 빼앗기엇든 자긔의 매를 차젓습니다 이사람은 자긔사랑 하든 매를 가지고 자미잇는 사냥을 다시하게 되고 황소님자는 혼자 손해만 당하고마럿습니다.

넷쌍동이기담

넷쌍동이에 관한 이야기는여러번 본면에 소개된바도 잇고 또『카나다』의『오타리오』주『캐란다—』에 다섯쌍동이가 생겨난이상 별로신통할것이 업습니다만 미국『뉴저지』주『페이사이크』란곳에 네쌍동이가 낫지요 이 이야기는 그당시 신문전보로 전세계에 보도된바입니다다만 넷쌍동이를 나흔부인은『에밀·카스파—』라고하는설흔여섯살된 독일게통의 이민(移民)인데 남편은 목수입니다. 그남편은 십팔개월동안이나 일꺼리가 업서죽을고생을 하다가 겨우한달에십팔불밧는 직업을 어덧스나 때마츰 안해가 네쌍동이를 덜컥나허노앗습니다. 『하나만 더나허다섯쌍동이만 되엿드면 나라에서 양육비를타먹을수잇슬겐데』하고두식구가 별안간 여섯식구로 늘어 먹여살일일을 생각하고 십술을 잔득내고잇섯드랍니다 이런판에『다섯쌍동이』의 면장영감이『페이사이크』의 그러케유명해저서 네쌍동이라고 돌보지안는것은 안될말이다』 이러케 의협심을 이르켜 주지사(州知事)에게 청원을 해서 이네쌍동이도 나라돈으로 양육하게 되엇습니다. 그리고보니 각신문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달려 칠백오십불을내겟다고까지햇스나 면장영감이 도모지듯지를 안는다합니다

참고삼아 말슴드리는것인데 보통쌍동이는 여든일곱사람만에 한번 세쌍동이는 칠천오백륙십구인만에한번, 넷쌍동이는 륙십오만팔천오백삼인만에 한번, 다섯쌍동이는 오천칠백만이만에 한번생기는 비례로 되어잇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넷쌍동이는『오크라호마』주『호—라스』에 사는 네쌍동이 게집애들인데 이애들은 벌서자라 지금은 스물한살인 꼿다운나이가 되엇습니다. 넷이 다건강하고 모도대학생이며 지난봄에는 대학총장을 따라 『오타리오』의 다섯쌍동이를 방문했다합니다. 사진은『에밀·카스파』부인이 금방나은 네쌍동이. 산부인과간호부들은 희한한 경력을지킷지요

우리동리에 놀림밧는 아이가 둘 잇습니다. 바지용환이란아이는 바지를 거질러입어서 북통만한배와 담뱃대 꼭지가튼 뱃곱을 드러내노코 다닙니다. 북성이는 코를푸는 버릇이업서서 은동곳 가튼 코를 느러트리고다닙니다.

(글쓴사람 정한집)

短篇小說 옥심이【二】

金廷漢 作 安夕影 畫

「왜라니, 이 늙은것도 봄철이 돌아오면 그저 공연히 마음이 뒤숭숭하는때가 만흔데, 글세 젊은 청춘으로서 어떠케 한해 두해도 아니고 원……」

노파의 말은 농보다 진정이다.

「그것다 팔짜걸 어떠케요!」

마지못해서 하는 옥심의 대답.

「팔짜?」

「……」

「흥, 팔짜람게 뭐요? 고치면 그것도 팔짜요. 나가튼 바보가 못 고처지, 참 지낸일 생각하면——」하고 만두할멈은 잠깐 숨을 모아쉬드니, 「수절이니, 의리니그것다 소용업소. 쉬운말로 누가 열녀문부터 과부로늙은 날위해 렬녀비 세워줍디까? 그까짓것 또 세워준들 뭘해요! 비석에서 밥안나옵바에야. 어쨋든 세상따라 살림이오. 백암사주지보시오 게집이 멧치나되도 산중에선 그래도 산부처님이니 뭐니해서 떠고으고 주지짓만 땅땅 잘해먹잔수.」

옥심이가 말이 업는것을보고 만두할멈은 갓갑한듯이, 『이런소리 하는것이 괜히 수복어머니의속만더 어지럽게 하는것 갓소마는, 수복어머니 일이 마—치 지내온 내일가리압히 강갑해서 하는 말이오. 인생이 두번 잇는게 아니고, 또 여자가리 어리석은게 업소. 아니할말로 당신이 그러케 되고 수복아버지가 성해보시오만, 여태 그냥 잇섯겟소! 아무리 속아사는 인생이라고해도, 알고서 속는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만두할멈의 쪼그라진 웃음물음에는 자긔와 비슷한 길을 밟으라는 여자에게 대한 동정의 쓰듸쓴 비치수업시아롱거렷다.

옥심이는 그러치안허도 올가망하든 속이 것잡을수 업시 산란해젓다. 대소쿠리에 자갈을 반남아 담아들고 게다리거름으로 타박타박 레—르겨드로 아긔적거려가는 만두할멈의 뒤꼴을 바라보다가는 불현듯이 몸서리를 친다. 닥처올 자긔의신세가 터서. 이옥고, 그는 납불으게 손등으로 눈물을 씻고수건을 터숙게 내려쓴다.

(만두할멈 말맛다나, 내가 참 어리석지! 속담에 첫먹는것두 고 가는 변은자국마다 피가매친다고 하지만, 수복이도 인제 고만큼 자랏스니 어미업서도…… 그것도 모다 제팔자——그만 어제 그 안집장의말을 들을까……?)

옥심이는 마침내 이런생각에 사로잡혓다. 안집장이란이는 그의 친가곳 사람으로서, 일쯕이 사방공사 풀파리를 다니다가그만 그길로 밋끄러저서 한산인 부가되여 고향을 등진 발국군이다.

「야! 이게 어쩐 일이오! 당신이 이곳에 와잇섯군요?」

안집장이 아무 가렴업시 놀낼때, 옥심이는 어쩐지 부그러우면서도 일변은 반가왓다.

「식지살이가 매우 고달프지오 소문은풍편에 더러 들엇소만」

안집장은 마치 친오바 되는듯이 위로스조로 말을 끄내엇스나 주제스럽게 말끄틀 이상하게 돌리고 돌아갓다.

(과연 그이가 정말 그런생각을 가젓다면……)

옥심의 마음은 연방 들떳다부서진 배바닥에 물결이 스미여들듯이, 옥심의 들곳업는 가슴에는 안에게 대한 야릇한생각이 점점 기프게 파고들엇다

二

떙떙떙떙……!

두미산 중턱에 자리잡은 현텐트의 사무소아페서 종소리가 요란케 울리자, 고대튼 점심시간, 냇가의 깍가질은듯한 언덕위에서 안집장의『시마이!』소리가 떠러지기가 밥브게, 석수장이들은 뚤허둔돌구멍에 화약을 집어넛코, 여자들은 물이나게 손발을 씻고는 삽분삽분 동금다리를 건너간다 옥심이도치마자락을 거더쥐고 유달리 힌종아리를 조심스럽게 끼우뚱거린다.

『속히들 피하시오!』

하고, 석수장이들도 범물본 사람처럼 돌아도 안보고 내건너편으로 내달린다.

여자들이 이쪽 언덕위에 피해와서, 떠러는 어린것을 바다서 저줄 물리고 떠리는 구더진 강보리밥수건을 펴랄때 남포는 사납게 터진다.

쾅——! 쾅——!

벼락치듯한 소리를 내며 바위가 깨부서진다. 산기슭 평새끼란돌이 작난하다드킨 남녀처럼 깜짝 놀래며 파드득 꿩꿩 어미품에서 저즐 빨든 어린것도 금시에 빨간 혀끄를 떨며 죽는듯이 떼—소리를 질으고, 여자들은 일제히 눈을 두릿거린다. ——아름이 넘는 돌덩어리들이 공중재비를 넘어 철석 철석 내물을 치고, 바서진 돌조각이 놀란 종달이 가리 뛰여솟굴고나면 아지랑이 낀 먼산이 한참식 우르르 운다.

胃酸過多

胃液分泌過多症
胃痛·胃가다루
胃痙攣、胃潰瘍
十二指腸潰瘍
惡醉宿醉에

制酸과鎭痛

가슴아리 黃疸病 暖氣

胃中에 酸이 過多해서 胃壁이 刺戟을바드면가슴아리와 酸味의、膽汁 드림이나고 또 空腹時에는 胃痛을 惹起합니다

이가튼症狀은 一般으로 消化가조치안흔飮食物과 胡椒唐草子의刺戟物、珈琲、紅茶、菓子等을 조화하는이 또는 神經質인사람에게 만흔데 이런、境遇에 一時避하기爲하야 重曹와 重曹配劑의濫用을 避하지안흐면 안니됨니다 重曹에는 後作用으로 再次胃液分泌를 促進하는缺點이 잇슬뿐아니라 習慣이될 念慮가 잇습니다.

優秀한制酸·鎭痛作用

珪酸알미니움을主効分으로한 新制酸、鎭痛劑、노루모잔錠은 (一)거치러진胃壁의 粘膜을 被覆保護하고 (二)餘分의胃酸을 吸收하고 (三)胃液의分泌를抑制하므로 胃中에酸이正常히回復되고 胃液의分泌는 調整되여 其結果가슴아리와 胃痛이사라지고 原因的으로 制酸鎭痛의效果를 나타냅니다

【價格】携帶用 六錠(一〇錢)外數量이有함
【服用容易】爽快味가잇다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武田發賣品

36—386(⊖)

文壇抗辯 ② 循環的論題의 沈鬱

李軒求

우리가 한個의文章을構成하랴할때 爲先 可能한限度에서 先人의 明見과 名著를 遍하야한 個의想을 짜내랴고한다 이한個의想때문에 우리는

……絶……望속에 빠질수도잇고 暗黑속에서 橫恣도하며 甚至於自我의 無知無能을 侮蔑하고도남는 自愧가잇기도하다 이過程을 마치 李太白이라는 詩人과가티 斗酒 明月만잇스면 언제나 百篇도可也요 千篇도 能히여클수잇다는傳說을 그대로 信用한다고하더래도 到底히 凡人으로서 그境地를 가질수업는것이다

이리하야 어떠케나 한個의想이 稀微하나마 輪廓이잡혀지면 거기에서 한오리의 光明을차자 진땀흐르도록 苦心도 하게되고 가다가는 확작흔關門이 열려오기도한다。即 그文章속에 自己의 想을 收容할수 잇는그릇을 形成한다

오늘 朝鮮의評論에서 느끼는 自他의不滿은 우리가 그筆者의 苦心精刻의 자최를 엿볼수업다는 그보다도 너무도 類型的인 商品과가튼 內容과 形式이 多分히잇다는 거기에잇다 우리가 어느程度까지 한個의話題를가지고 論難을 反覆할수잇느냐?하는 持久力問題는 各自의 生理的條件과

……精……神的貧富에서 決定되려니와 더욱그것이 體系를가진 映關性으로써 한個의 研究를 發表하는것이라면 그도 모르거니와 그러치아니하고 時事的인 問題를 取扱하는 한便 感銘업는 文句의 羅列을 일삼는 傾向이 오늘朝鮮評壇에는 한個의 만네리즘으로서 橫行되고잇다

假令 社會主義的 又는××的 레알리즘의 論爭에서보는바와가티 언제나 一步의 前進과 展開도업는 그무슨커-다란 原論의 樹立을爲함과가튼 實로 巨創하면서 虛妄한辯說이 張過할 뿐이다 寡聞寡知의 筆者로서이를 一言에 잘못이라고 反駁하랴함은 아니로되 世界 어느評壇의 論題를 차저본다고하더래도(勿論 가까운日本에서 歐米까지)이러케 야단스러운創作方法論이 멧해를두고 끄을어간다는事實을 聞見할수업슴으로-무슨까닭인가?

그만큼 外國文壇은 創作方法論에對해서 等閑한것인가? 또는 그理論이 벌서 『試驗濟』인가? 아니朝鮮만이 오늘의 가장進步的當來할 文學에對한

……先……驅的理論을 創設하고 그를發展시키며 더나아가 普遍化하는 歷史的任務의 遂行에 適宜하는것일까? 여기에 이理論의 信奉者(그러타고 筆者와가튼者는 모도다 이理論에 全然盲目이라고 自處하지는 아니한다)들은 그러면 理論으로써 이 理論을 克服하라! 고 正當한抗辯을 내대일것이다 實로 이것은 가장當然한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當然하다고 하기前에 爲先 그筆者自身이 그話題에對한 反省과 熱意이 必要하지아니할까?

去年에 評作者作家問題로 두고 文壇의한구석에 서맘성되든 그와비슷한事實을 오늘의文壇에 演出하고잇다는것은 얼마나 話題거리와 問題材料가 貧弱하고 局限되엿다는 沈滯의 反映밧게 더안된다 그러면 朝鮮文壇에는 그러케도 話題와 論題가 貧乏한것일가? 評論家가(實로 朝鮮과가티쉽게 이러한社會的稱號를 밧기쉬운社會가 어듸잇슬것이다)그어떤 文學精神의 새로운發揚을爲한 苦心이업시 그저

……文……句의羅列、또는 姓名의羅列(中傷을爲한不純한辯說도包含된다)로서 原稿紙의 메面을 적서노코하는 그것을 習慣으로 實行하고 잇다는 一面의 事實에 비초여 한個의 論題가 數年을두고 定期的으로 反復되는 循環性에는 朝鮮的特殊한 眞理라고 認定될는지도모르겟다

文句의羅列이란 그것이 지나치는 人格中傷이아닌限(或은中傷이라고하더라도)한個의犯罪를 成立하지는못한다 그러나 그러타고해서 언제까지 이現象이 持續되야할것인가? 자못 沈鬱한일이아닐수업다

漢詩

綠陰 押鶯

桐岡 考選

佳作三之二

鳳山郡 崔楨穆

綠樹陰濃漏夏城
微風晴動雨初晴
漾漾沉江撈不掬
重重羃地掃還生
可惜落花如過夢
聊知芳草是同情
納凉添得詩人興
好聽斜陽喚友鶯

懊惱의 詩人 하이네研究 (五)

徐丙玨

하이네가 自己의마음을 바다에比喩하얏다。 動而不止하는바다 때로는 사람도 바도삼키는바다와갓다。그러나 아름다운 眞珠를 품엇다。

그대는 꼿과가티도
귀여웁고 순결하고 아름다워라
그대를 볼적마다 슬픔이
내가슴에 들어온다
(第四十七章 第一節)

二百五十餘의 作曲을가진 詩로서表現이 文字그대로 아름답다。

"魔女의힘가티 억센情炎이
그대의가슴을 뚤올때
지나간날 그러케도 귀엽게노래하든
그대의愛人은 엇지되엿나?"

그대의情炎은 꺼지고
내가슴은 식고 슯다
그리고 이조고만冊은
내사랑의 灰를담은 骨箱이다。
(第八十八章)

失戀의 悲歎으로 가득찬『歸鄕』의小曲의 哀傷的에 피로-ㄱ이다。그外에 四五篇의 長詩가잇스나 注目될만한것은업다。

『할쓰旅行』『北海』

(Harzreise)(Nordsee)

一八二五年六月廿八日에 꾓팅겐附近의 小都會하일리겐슈타트(Heiligenstadt)에서洗禮를밧고 基督敎로 改宗하고 하-리-를 하인리히로改名하얏다。改宗의動行은 하이네의生涯에잇서서 重大한意義를가지고잇다。衷心으로 基督敎에 對하야 信仰心이 篤實하얏든것이아니라 猶太人에게는 社會的地位가 封鎖되엇기때문에 外的生活上의方便으로 改宗한것이다。 그러나 結果는 意外에도 猶太人에게는 背敎者라는 指彈을밧고 基督敎徒에게는 依然히 猶太人이라고 白眼視當하야 또한바 公職도成功치못하고 精神上苦痛만加重하얏다。

同年八月에 꾓팅겐大學을 卒業하야 辯護士의 資格과學位를 獲得하자 叔父의寵愛를 밧게되엿다。叔父 자로몬은 任둥를-유리우스(法學博士)의 成功을祝하야 하이네를 놀데네이(Norderney)에 靜養을보냇다。不過二個月間의 滯在이엇스나 避暑地인關係로 滯留하는 多數上流貴婦人들과 交際할機會를 어덧고宿病頭痛도快癒되어 淸新한氣分으로 詩集『北海』를쓰엇다。十月에兩親에게 단여서함부룩으로갓다。二十六年녀름까지잇는동안 테레-제와의 關係도 一進一退하얏스나 結局은 成功못하고 失戀의 陷穽에빠젓다。

同年五月에『歸鄕』『할쓰旅行』『北海第一部』를 收集하야『紀行』(Reisebilder)第一卷을 出版하얏다。同年七月에 놀데네이에再遊하야 上流階級과의 交際와逸樂의 生活을 繼續하며『北海』의第二部와 第三部를 完成하고 九月에서 翌年一月까지 歸省하야『偉人의書』(Das Buch le Grand)를쓰고、一月에 함부룩으로 가서『北海』第二部와第四部(散文)와『偉人의書』를合本하야 『紀行』第二卷을刊行하얏다。

『할쓰旅行』은 前述한바와가티 一八二四年九月에 할쓰와 추-린겐의徒步旅行時의産物이다。하이네의理念과 現實의對立에서나오는 諷刺와機智가 充溢되어잇고 自然에對한愛와 造物主에對한尊敬이表示되어잇다 完全한테-마가잇는것이아니라 斷片의繼續으로서 自然描寫의 淸新한香氣 美妙한筆致 僞善者에 對한假借업는毒舌輕妙한諧謔이 讀者를 魅了하야마지안는다。

詩集『北海』에잇서서 하이네의詩는 劃期的發展을하얏다。『抒情中間曲』에서 完成美에接近하얏고『歸鄕』에서 新方向探求에努力한 痕跡이보이나『北海』에서는 技巧의束縛에서脫出하고 詩形에잇서서 完全한自由를 獲得하얏다 一定한型이잇는 諷詩 소넷트는 例外로 하고 大部分의詩는 四行一節로 制約되고 外的整形美에 執着하든것을 破格하야 自己의詩的感興을 自由한型으로表現하얏다。諷刺와厭世의傾向이濃厚하든『歸鄕』에比하야『北海』에는 躍動하는生命이 잇다。『北海』第一部 第二部는後年에 『노래의冊』에編入되엇다。

船室의밤

바다에는 眞珠
하늘에는 별
그러나 내가슴에는
내가슴에는 그의사랑

바다와하늘은 크다
그러나 더큰내가슴
眞珠와별보다 더귀여운
내사랑은 빗나고 반짝어린다

少女여!
내가슴에 안겨라
내가슴도 바다도 하늘도
偉大한사랑아페서는업더진다
(下略)

愁誰語 ②

지용

저르렁이면 아스팔트를 밟고 가고 십다。 서울거리에서 흙을 밟을 맛이 무엇이랴。

아스팔트는 고무밋창 보담 진한개 밧지안흔 우피그대로 사폿사폿 밟어야 쫀득쫀득 바치우는 맛을 알게된다。발은 차라리 다여야 처럼 굽히간다。밟이 해사로 롤아티니자 기에 나는 작고 끌리온다。 밟이 잇서서 나는 고독지안타。

街路樹 어듸마다 凝滯하기 롱고기 갓고 六月초승 한눌 알에 멧멧한 高層建築들은 形나무냄새를 풍긴다。나의 파나마는 새파라틋 젊을수밧게 家犬 洋傘 短杖 그러한 것은 閑雅한 敎養이 잇서야하기에 戀愛는 時間을 甚히浪費하기때문에 나는그러한것을 길들일수 업다。나는 甚히 流暢한 푸로-레타리아트! 고무뽈처럼 퐁퐁튀기여지면 다。午後四時 오피스의 疲勞가 나로 하여금 軌道一切를 밟을수 업게한다。작난감 機關車처럼 작난하고십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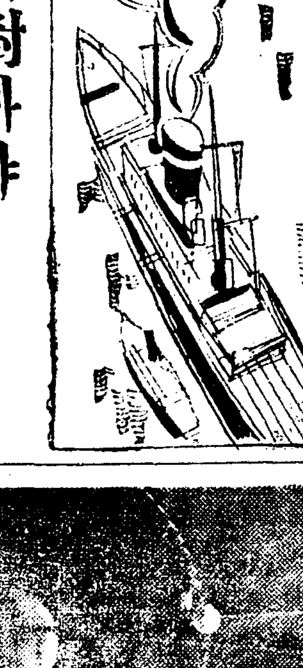
풍록이가 업서도 종일새가나려오지 안어도 조흐로신하고 판판하고 만만한 나의 遊牧場 아스팔트! 黑人種은 파인애플을 통채로 쪼기여 새빨간 입술로 쭉쭉드리킨다。 나는 아스팔트에서 조금 빗겨 들어스면 된다。

탁! 탁! 튀는 넘네-르가 瀑布처럼 싱싱한데 黃昏의 서울은 갑작히 澎漲한다。 불을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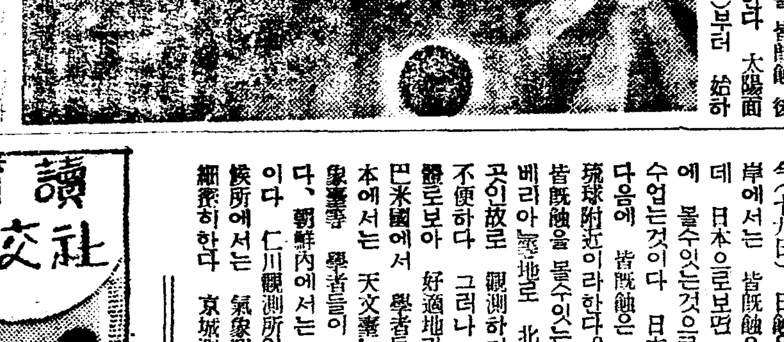
日蝕에 對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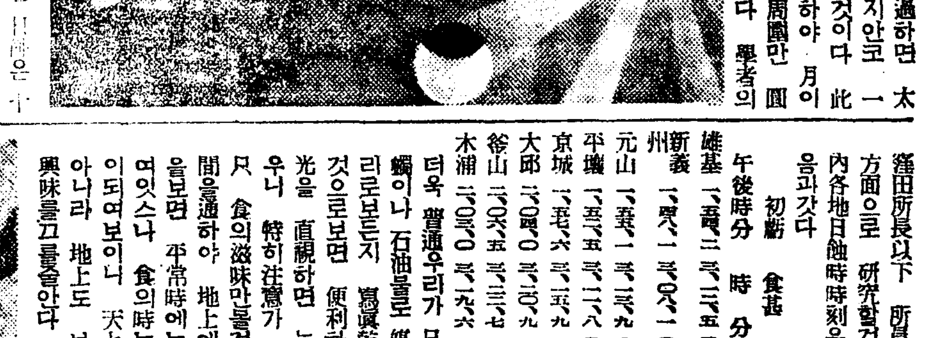
興味잇게 變幻하는 地上의 光景

(京城測候所) 鄭泰埈



日蝕은 一般世人이 須知이나 簡略히 써보랴한다 即地球 月 太陽三體가 一直線上에잇슬時에 太陽의光線이 달에가리워서 月의 陰影이 圓錐形으로되여 地球에 到達한다 엇지하야 그러냐하면 月의 本影의 長이 最大九萬六千八百三十里 最小三千五百里의사이를 往來하고 月에서 地球까지의距離가 最大十萬三千二百三十里 最小九萬二千四百八十里가되다 故로 本影中에잇는사람은 太陽全體를 볼수업시되며 半影中에 잇는사람은 太陽의 一部分을 볼수가잇는것이다 前者를 皆既蝕 後者를 部分蝕이라한다 太陽面에 食은東西端(右)부터 始하야 此時에는 暗黑한 圓盤이 太陽面上을 徐徐히 通過하는것가티 보인다 이 黑圓盤이 即 日光을 밧지 안는 月面이고 그中心이 太陽의 中心點을 通過하면 太陽은 全部 月로 因하야 隱蔽하야 皆旣蝕이되고 조곰이라도 北(上)或은 南(下)을 通過하면 太陽은 全部 隱蔽하지안코 一部分에 日蝕이되는것이다 此外에 金環蝕이라고하야 月이 太陽中心에잇서서 周圍만 圓形으로 남는일이잇다 學者의 計算한것에 依하면 日蝕은 十八年間에 四十四回 皆既蝕은 一五〇年 乃至二〇〇年에 一回라고하는 極히 볼수업는일이라한다。





(寫眞上은 皆既蝕 中은 部分蝕 (下)는 金環)

今(十九日) 日蝕은 北海道北岸에서는 皆旣蝕을 볼수잇는데 日本으로보면 約四十年만에 볼수잇는것으로 極히 볼수업는것이다 日本領土內에서 다음에 皆既蝕은 一九四三年 琉球附近이라한다。더욱 이번 皆旣蝕을 볼수잇는곳은 土耳其 西伯利亞 滿洲로 北極에 갓가운 곳인故로 觀測하기에 大端히 不便하다 그러나 北海道는大體로보아 好適地라 멀리 歐羅巴米國에서 學者들이오고 日本에서는 天文臺는 勿論 氣象臺等 學者들이 集中하고잇다。朝鮮內에서는 모다部分蝕이다 仁川觀測所와 밋各地測候所에서는 氣象觀測을 더욱細密히한다 京城測候所에서도 藤田所長以下 所員一同이 各方面으로 研究할것이다 朝鮮內各地日蝕時刻을 보면 다음과갓다

	初虧	食甚	食分	復圓
	午後時分	時分		時分
雄基	一、四三、二	三、一三、五	〇、八四	四、一三、一
新義州	一、四八、一	三、〇八、一	〇、七一	四、二〇、三
元山	一、五一、一	三、一三、九	〇、七三	四、二四、五
平壤	一、五二、五	三、一二、八	〇、六九	四、二三、九
京城	一、五七、六	三、一五、九	〇、六六	四、二五、六
大邱	二、〇四、〇	三、二〇、九	〇、六四	四、二九、三
釜山	二、〇六、五	三、二三、七	〇、六三	四、三〇、四
木浦	二、〇三、〇	三、一九、六	〇、五九	四、二七、八

더욱 普通우리가 日蝕을볼나면 硝子나 石油불로 媒煙을칠한유리로보든지 寫眞乾板검어케한것으로보면 便利하고 直接日光을 直視하면 눈을버리기쉬우니 特히注意가 必要하다 單只 食의滋味만볼것이아니라 樹間을通하야 地上에 그린光影을보면 平常時에는 丹形이되여잇스나 食의時는 各種의形이되여보이니 天上만 볼것이아니라 地上도 보는것이 더욱 興味를끄를줄안다 (끗)

讀者社交室

▲金顯翼兄에게 日常兄의安否가궁금하오나 住所를알길이업서十有餘年을 通信치못햇소이다 듯는말이咸興이라고도하는데 咸南의어데이오며 消日은무엇으로 가지고잇사오지 本社交欄을빌든지 直接通信을주시든지하여주시기바라나이다。 平北宜川郡南面三省洞 桂慶敎

▲저는只今二十歲의 朝鮮語와 日本語外에는 不通하는男子이온대 恒常上海와南京을憧憬하고잇슴니다 其方面에經驗이잇는이가 계시거든 問議事項이 잇사오니 手苦롭지만社交室을通하여 住所를 알으켜주시면 薄謝를呈하겟나이다 山村 吉囲生

▲本團은 七年前에 創立된바 今番 會員을增員키 위하야 會員을 募集하오니 市內에居住하시는분으로 하-모니카에 뜻잇는분은 만히 枉臨하시옵소서 特히 今番엔 初學者도 歡迎합니다 日時 每日曜午後八時부터 場所 市內授恩町授恩樂湯上層에서 追告 詳細規定은 市內明倫町四丁目一二七ノ十一號 金虎俊方으로 問議하시압 알파하-모니카研究部白

▲明治四十二年陰八月十四日과 大正三年陰六月五日이陽曆으로何年何月何日何曜이온지 本欄으로敎示하시면感謝하겟슴니다 或은左記住所로直接下敎하시면薄謝를進呈하겟슴니다 大邱府東雲町五八 權寧昱

▲京城이나 平壤市內에서 千圓小資本으로 商業을經營하려면 어떠商業을해야되겟스며 四五人家族이生活하는데에 그리궁색하지안켓습니까 下敎를伏望 本欄으로通知하야주시요 (欲知生)

▲朴栗用君 突然이라 只今은 어느곳에게십니까 讀者中아시는분이게시면좀알으켜주오 釰邑 朴

▲六月七日付三水公立普通學校第四回卒業生諸友의住所를 社交室欄을通하야 問議하옵기 左記와 如히通知함 咸鏡南道甲山郡惠山邑惠山里 惠山專賣局派出所內 李鳳俠

▲女高普나 保育學校卒業하신분으로 敎員試驗準備中에게신분이나 敎育에從事해보시랴는분은 안게십니까 市內에잇는 女子夜學인데俸給은못드리고 電車삭품은올릴수잇습니다 每夜三時間가량이오며 文盲을退治하야 주는것이 우리들의 義務가아닐가요 同志者를求하오니 이方面에뜻게신분은社交室을通하야握手코자합니다 市內杏村町 二一〇ノ四一二 金淵鎭

▲讀者諸位中『新聞學』(朝鮮文)가지신분잇사오면 左記住所로보내시는이에게 薄謝進呈하겟습니다 奉天西塔大街花木洞六號 文炳商

▲本人은南大門通二丁目某製藥所에通勤하옵는데今般下宿을求하고자讀者諸位께問議하옵니다 鍾路一帶면何處라도無妨하오니直接或은間接으로라도本紙社交室로其住所를알려주시면直接訪問하겟슴니다 (但 獨房으로 營業的下宿外다) 역집下宿으로家庭上한食口와가티지내실분을求하오下宿費는要求하는대로相當히生覺함 求下宿 基宗生

▲大正元年(壬子)陰九月二十日과大正三年陰四月十七日은陽曆으로何年何月何日인지 貴紙讀者社交室欄으로解答하여주십시요 (平壤一讀者)

絢爛한 天分의 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 「슈-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 「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 ‖第一樂章‖ 「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 ‖第一樂章‖ 「비오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交附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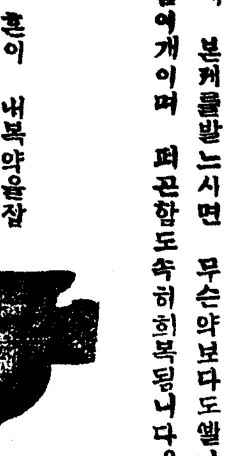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앞은곳에발느면낫는

神經痛…류-마지스 담절니는데……頭痛 咽喉痛……견비증 腰痛……運動競技로 인한 打撲……筋痛 疲勞回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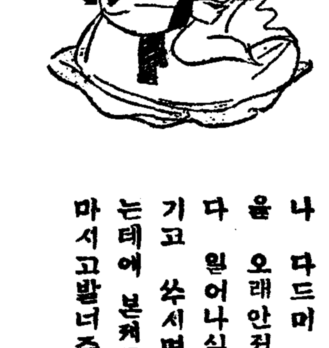
알픈곳・쑤서는곳・결니는곳・부은곳・쎄인곳・가려운곳의피부에「사로메지-루」를조곰 발느시고 문질느시면 그럭케심하든고통이 곳낫게되는약입니다。내복약처럼 위장에고장을일으키거나 인이백이는법이업고 직접 환부에침투되야서 열나 효험이 낫타나는것이니 편대안심하세고 사용할수잇습니다。



견비증

직무과로 혹은 신경통으로 억개 가슴 허리 관절에고통 또는 피곤하신째에 본제를발느시면 무슨약보다도썰니 열쯤에게이며 피곤한도속히회복됩니다。

두통 현기증이 나는분은 흔이 내복약을잡수시나 위장에고장을일으키기쉬웁고 더구나 인이백이게되나니 이런째에는 본제를발느시면 고통도곳개이며 기분도 상쾌케됩니다。



근육통

담절니시는데 쌜내나 다드미 바누질을 오래안저서하시다 일어나실때 쎵기고 쑤시며 결니는데에 본제를 잇지마시고발너주십시요

家庭應急常備藥

으로 本劑를어느가정에도 한개씩 준비하야두시기바라오니 이상과갓흔증세에 잘들을뿐만아니라 평지낙상 멍든곳 또는 급작히압품을참지못하는경후에 전문가의치료를밧을때까지 응급치료에 사용하야주시기바라오며 빈배 모기에물니지안는 예방도됩니다。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함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루

S-K-18

連載野談 (四三)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어잔만은사양(三)

김소변이 구월산을 떠나서자 처번 눈에 띠이는것은 구름빗어 문운(雯雯)한 시루봉(甑峰)이엇다.

말곱비를 늦추어 두벅, 두벅걸보로서 산길을 밟버 들어갈새 당장경(唐莊京)끼치러에 밧을 가는 누른 황소는 술찬양이보이고 단군대(檀君臺)압 높은돌 나무에 안젓는 화루룸이는 놀나듯 급히 날는다.

그는 쉬염, 쉬염 시루봉까지 올나 넷 성려를 두루 돌려보는중 특히 단군께서 친히활을 쏘섯다는 그거룩한 자리에 나르러서는 다시금 그 성은(聖恩)을 우러어 감사하 생각하엿다.

그런뒤 그는 탓든 말은 옥어진 풀밧에 곱비를 풀어 집게 매어주고 자긔는 창을 들어서 멀니잇는 나무를 향하야 던지기를 시작하얏다.

어때 그 창끗에 찍히는 나무는 푸른 닙사귀가 우수수 떨어지고 가지가지 발발 떨니엿다.

그는 더욱 신이나고 힘이올나 맛치 몸은 사자와가티 번듸기고 창은 번개와가티 내두룰새 그 창끗에 생채기가 생긴나무는 붉은 피대신으로 젓빗가튼 진물을 흘닌다。

그는 니와가티 한참동안 창쓰는법을 익히는중 별안간 큰솔나무뒤로부터

『여보!。 죄업는 나무 질물내지 마오。』

하는 소리자 들니며 나무군아이 하나가 썩 나선다。

김소변은 일변 놀나며 그 초동을 바라보자 악가 산어귀에 들어설때 작대기로 비웃든 양을 보이든 아이인것이 분명하얏다。

『예기놈! 악가부텀 버르쟁이가 업서 보이드니 또 버르쟁이 업는 말까지하는구나, 예기놈!』

하고 김소변은 창던지든것을 멈추고 그초동을 바로보면서 노한 긔색으로 꾸지젓다。

『여보! 내 버르쟁이 업는것을 꾸짓지 말고 당신이나 우순작란을 고만 두오』

『이놈 우순 작란이라니 웅?』

『그게 우순 작란이지 무어란 말이요』

『이놈 그게 창쓰는법이지 우순 작란이라니。 네놈이 무엇을 안다고 웅?』

『창쓰는법! 창쓰는법! 그창이 도야지 꿈창이란 말이요』

『예기놈。 네가 웬놈이기에 그러케 버르쟁이가 업느냐?』

하며 김소변은 크게 노 하야 그 초동을 붓잡으려하얏다。

그러나 그 초동은 김소변의 손을 피하야 저편 솔나무뒤로 몸까지 피한다。

김소변은 분함을 참지못하야 그 초동을 쫏처갓다。

그 초동은 김소변이 쫏처오는것을 보고

『피ー』

하면서 비웃는 우슴을 우수며 엽헤 솔나무뒤로 또한 몸을 피한다。

김소변은 더욱 분하야 그큰 목소리로써

『이놈。 피? 그케 무슨 소리냐?』

하며 쫏다 그 솔나무뒤로 가서 손을 내밀엇다。

『피ー』

그 초동은 여전히 비웃는 냥을 보이며 또한 다른 솔나무뒤로 몸을 피한다。

『도대체 이놈이 웬 아이놈이야 아무리 배지못한 두메놈이거니。』

하면서 김소변은 갓수록 분하야 또한 쫏차갓다。

그러나 그 초동은 태연한대도로써

『당신은 풀뭉이라 그러케 미련하고 둔하우。』

하고 그제는 솔나무 압흐로 바로 나선다。

김소변은 분한 숨결을 죽이고 고요히 섯다가 별안간 날센 소리개와가티 두손길을 벌니고 덥버 들엇다。

그러나 그 초동은 어느듯 몸을 피하면서

『당신이 참 병신이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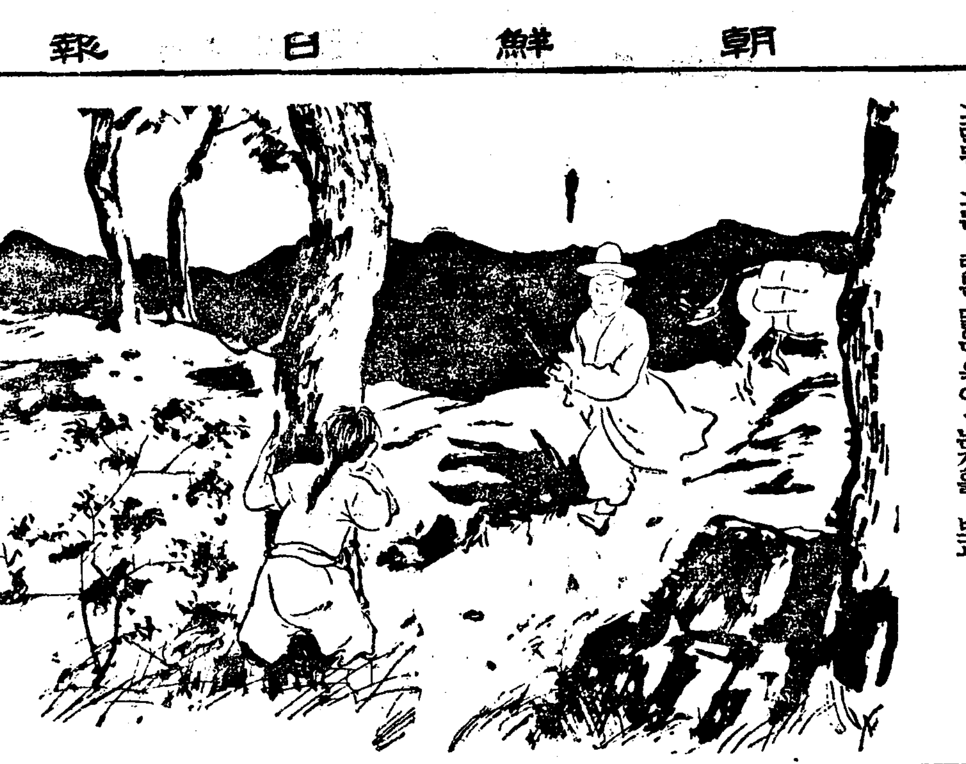
하고 껄껄 우스며 솔나무뒤에서 고개를 요리 저리 갸웃거린다。

김소변은 크게 분한것이 지나처 이제는 악이되여 창을 바로들고 그 초동을 향하야 또 한번 덥버 들엇다。

그러나 그 초동은 번번히 몸을 피하야 김소변이 이리쪼츠면 그 초동은 저리 쫏기고 김소변이 저리 쪼츠면 그초동은 이리 몸을 피한다

김소변과 그 초동은 다만 솔나무하나를 사이에 두고 맛치 맴을 도는듯 술바꼭질을 하는듯 서로 이리 닥치고 저리 닥첫다。

이때 해는 어느곳 저물어지고 산새소리가 요란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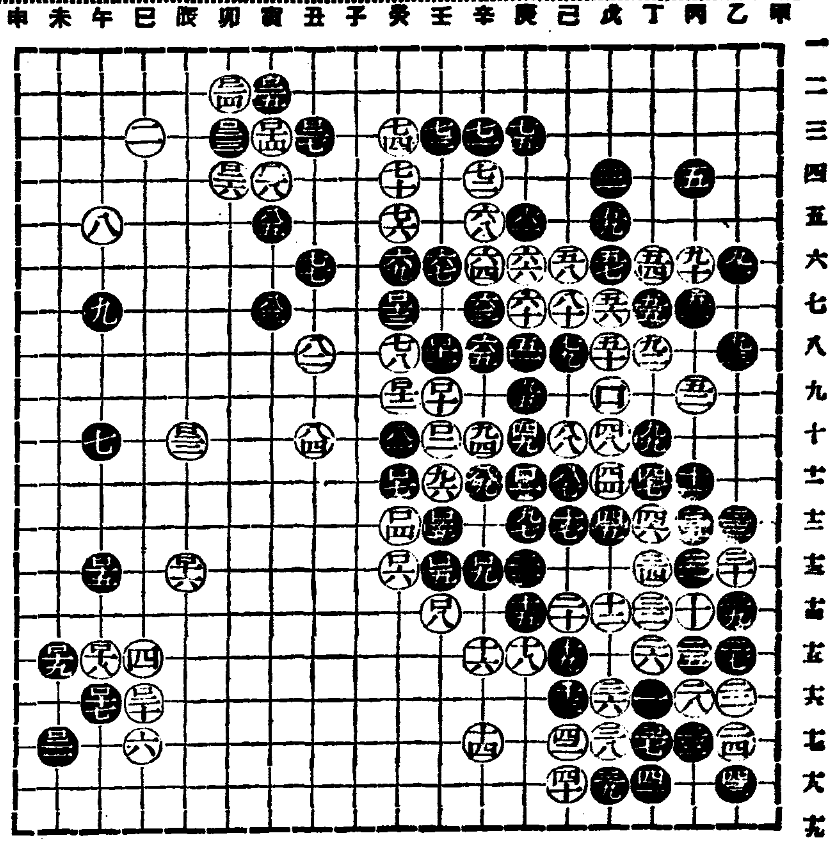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7=

本社主催

白 柳鎭河
黑先 丁奎春

●二三 癸의七
○二四 寅의三
●二五 午의十三
○二六 辰의十三
●二七 午의十六
○二八 午의十五
●二九 未의十五
○三〇 巳의十六
●三一 未의十七
○三二 辰의十
●三三 卯의三
○三四 卯의二
●三五 寅의二
○三六 卯의四
●三七 丑의三
○三八 寅의四



禁極文氏評曰 黑이 西邊白區內浩大를 憂慮하야 縮少할 秘算으로 午의十三 十六으로 略干壓迫하고 卯의三으로 挾着하야 寅의二로 斷點을試하니 眩惑幾微가 暗動하는지라 黑이 發角不穩으로 白取扱이 何如할지 來頭結緒를 拭目而待하노라

映畫企業의將來 (四)

崔章

그러나 나는 여기에 過去映畫事業에對한 엇더한 悲觀的狀態가 잇섯슴을 不顧하고 現在朝鮮의 周圍事情에鑑하야 映畫產業이 必然的으로 發展할것이며 各가운將來에 偉大한 飛躍을 하리라고 豫斷하고십다。

우에서말한바와가티 朝鮮의映畫製作事業은 極히 貧弱한狀態이다 그러나 映畫의 配給 興行等의 消極的方面에잇서서는相當히 活躍을하고잇스며 數字上에表示된 그동안의發展形跡은 年年顯著한것이잇다。이러한數字를米國은莫論하고 日本內地의現狀에比較하면 말할수업시 幼稚하고僅少하나 그發展增加하는 比率를參照하면 도로혀 朝鮮映畫事業의將來性을 豫約하고잇는感이잇다。

朝鮮總督府映畫檢閱狀況(昭和九年)

	日本映畫	外國映畫	朝鮮映畫以外	總計
件數	一、三五八	五九八	七八	二、〇三四
卷數	八、九六五	三、六七一	一、一八一	一三、八一七
米突數	一、九七三、〇二四	八九九、八九〇	二一四、一五五	三、〇八七、〇六九

(朝鮮年鑑에依함)

最近의 이에關한、數字는 朝鮮總督府 柳生圖書課長談의 形式으로 發表된『昭和十年中의映畫檢閱狀況』이라는 프린트에記載되여잇는대 이에依하면 昭和十年度에도 亦是累進的으로 增加하엿고 卷數一四、六六八 米突數 三、三三四、八九五이며 이를 昭和八年에 比較하면 卷數와米突數에잇서 모다約二割가량 增加하고잇다。

그리고 이러한數字에 注目되는것은 檢閱映畫이니 昭和十年度에 國產映畫는 一〇、二八九卷 二、二五七、〇四一米突로 總數의 六割七分를占하야잇고 外國映畫는 四、三七九卷 一、〇七七、八五四米突로 總數의 三割三分에 不過하며 前者가 累年增加하는反對로 後者는 漸次減少하고잇다。 이것은 下記한 映畫取締府令에 依한 當局의 國產品獎勵의反映이다。

다음에 注目되는現象은 無聲映畫에比하야 發聲映畫의 激增이다。여기에 煩雜한數字의 引用은 하지안하나 昭和八年中에 檢閱한 發聲映畫數量은 無聲映畫의二割一分餘에 不過하엿스나 昭和九年에는 四割餘에 이르고 昭和十年度에는 一躍八割五分餘로 躍進하엿다。이것은 現在各國의映畫製作이 發聲映畫에 主力을集中하고 잇는事實을 말하는것이며 이發聲映畫의 發達은 以下에 詳論한바와가티 朝鮮人映畫企業에 重大한 關係를 가주고잇다。

朝鮮에 잇서서의 映畫上映狀況을보건대 昭和十年中에 鮮內九十六餘의 興行場과 其他假設의 興行場에서 上映되는映畫의數는 一二四四、九九三卷 五五、九八五、八八六米突(十一月分은 槪數計上)의 多數에 達하엿스며 이를 製作國別로보면 日本內地製作映畫가 六割九分 外國製作映畫가 二割七分이며 그大部分을 日本映畫가 占하고잇다。朝鮮製作映畫는 그中남어지四分의 僅少한 數字에不過한것은 注目하여야할 事實이다。그런대 이를昭和七年度의國產映畫四割 外國製作映畫六割의上映率에 對比하여보면 여기에도 當局의 映畫政策의影響하고잇는것을 能히알수잇다。

現在朝鮮內의 興行場은 上記한바와가티 假設을 除外하고 九十六餘個所가되며 昭和十年版朝鮮年鑑에 依하면 朝鮮內映畫館이 三十九個所(現在는 四十四、五館으로推算된다)라고發表되여잇다。映畫館總數를 人口割로보면 歐米는 五千乃至一萬名에 日本內地는 二萬乃至三萬名에 各一館을 所待한比率인대 朝鮮에서는 五十萬名에 겨우一館의차레이며 더욱 現在四十餘館中日本內地人觀客을 專門으로한 映畫館도 不少할터이니 朝鮮人의映畫施設이란 말할수업시 貧弱하다。

最後로 朝鮮內의映畫觀覽者數를보면 昭和九年中七百五十萬名(昭和十一年版 朝鮮年鑑)에 不過하며 日本內地의 二億二千萬名에 比하야 너무도僅少한數字이다。 이러한 數字는 劇場收容人員規定 興業稅等의 關係로 興行業者들의 申告에 多少의 減下가 잇슬것이나 이數字로서 一年間每一人映畫觀覽度數를 計算하여보면 겨우 三分之一回에 不過하고 이를歐米의 四十回乃至五十回에는 比할수도업스며 日本內地의 三回乃至四回에比하야도 悲慘한狀態이다。映畫觀覽度數의 多寡는 그나라의 一般的經濟狀態 民族의娛樂趣味 大衆의 生活樣式如何에 多大한關係를가지고잇슬것이나 映畫作品이가주고잇는價値內容의優劣이또한 이를左右하는 큰要素가될것이니 今後朝鮮映畫의製作에는特히 이러한點을 考慮할必要가잇슬것이다。

★曆★ 六月十九日(金) 建甲午五月大(初一日) 壬申·金·鬼·滿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어머니나 그바람 참!……남자들의바람은 이바람보다더겁나(가ー롤·롬바ー드와 프레드·맥무레이의『왕녀께서 건너오신다』의 한장면――파라마운트영화)

十八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금동이 은동이』 金尙鎭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史譚『워ー털루의激戰』 中東 司空桓
◇同八時 講演『日蝕이야기』 梨花女高 賴採表
◇同八時三〇分 漫談 申不出
◇同八、三五分(東)빠이올린獨奏
◇同九、一〇分 平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개성난봉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同九、三五分 短簫와 洞簫獨奏 一、散調(短簫) 二、새타령(洞簫)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鼓手 丁元燮 柳東初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座
◇同七時三〇分 講演 佐藤泰順
◇同八時 長唄 杵屋美乃至外
◇同八時二五分 詩吟 堀切正風
◇同八時三五分 (東)新日本音樂 宮城道雄外
◇同九時一〇分 (東)今日漫談 香島세븐

十九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東)로ー키ー中繼
◇同三時一五分 法律講座 改正된法律과女性(二) 金檍
◇同六時三〇分 泰西名作이야기(一) 單藥山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科學講演 〃배암이야기〃 金秉河
◇同八時 講演 〃알렉산더大王의偉業〃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三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八時三五分 (東)피아노獨奏 ー桃谷演奏所에서中繼 一八二六年以降의피아노曲(第五回) 一、세個의 前奏曲…… 라흐마니노프作曲 (가)샤ー프短調作品三三番의二 (나)F샤ー프短調作品三三番 (다)G短調作品二三番의五 二、두個의音詩作品三二番…… 스크리아빈作曲 三、두個의小品…… (가)바바야가 (나)키에프의塔 무소르그스키作曲
◇同八時五五分 哀戀曲外 一、哀戀曲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興打令 五、도라지打令 六、瀋陽아리랑
◇同九時二五分 映畫이야기 〃바리、코스트〃 李承雨

第一放送

◇午後一時三〇分 (旭)日食實況 女滿別서中繼
◇同六時 (東)이야기 奧屋五十
◇同六時二五分 (東)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大藏公望
◇同八時 (東)라디오·드라마 友田恭助外
◇同八時三五分 (東)피아노獨奏 桃谷演奏所에서中繼
◇同九時 (東)小唄 金子千惠子
◇同九時一〇分 (東)今日의漫談 御園랏키香島세븐

二十日(土曜)

◇午後零時五分 (東)째즈 一、부채가진女子…빽ー즈作曲 二、序曲『新婦의薔薇』…라발레作曲 三、간열픈생각…웰링톤作曲 四、洪牙利幻想曲…로버ー트作曲 五、물그리ー자…로ー브作曲 六、曲調는도라든다…라일리、짜ー레作曲 로ー이、심포닉째즈·오ー케스트라 指揮及編曲 로ー이·小關
◇同一時 野球試合實況『세네타ー스對全京城』 ー京城그라운드에서中繼ー
◇同六時三〇分 泰西名作이야기(二) 單藥山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貨幣의起源』 培材高普 金孜植
◇同八時 童謠齊唱 京保童謠會
◇同八時十五分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兒童劇『미덥지한동무』 二景 旺新童友會 指揮 金泰哲
◇同八時三十五分 獨唱 朴景嬉 피아노伴奏 高鳳京
◇同九時 古談『毒舌』 庾秋岡
◇同九時三十分 時事解說 申基碩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東)基礎佛語講座(三十) 丸山順太郎
◇同七時一分 (東)朝의修養 六波羅蜜(四) 文學博士 矢吹慶輝
◇同九時 (熊)衛生메모
◇同十時三十分 趣味講座 植田國境子
◇同零時三十五分 (東)歌謠 明星 永田絃二郎 伴奏 AK라디오앙상블
◇同二時 常識講座 鹽田正洪
◇同六時 (東)노래공부
◇同六時二十五分 (福)趣味講演 武將과佩刀 前田稔靖
◇同七時三十分 어린이와家庭의저녁

森永ミルク
모리나가 밀크
절대로맛을수잇는
우량품질!
新鮮한새닭에
제일잘잘닙니다!

M-1
森永製品鮮朝販賣會社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奨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腎을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꼭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듯깁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 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왓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 帽子 印잇는 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남에게숨기는淋疾……잘듯는 네오지린 ネオヂリン으로……곳치라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 株式會社 木村藥局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同水產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即時보내드리겟습니다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二一九 振替釜山七九二二

强力榮養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인
살지는데는二重의効果가잇습니다 少量으로서도榮養이될뿐아니라胃液의分泌를놉혀서攝取한食物을全身에보내는活力을갓고잇습니다

醫界의諸權威
五十醫學博士
로부터推奬狀을바든優良葡萄酒 ● 成分은葡萄糖 果糖 無機鹽類等

天下待望의冒險活劇大封切
六月十八日부터超特別大興行
米마스콧도映畫超特作全發聲連續篇
名匠알란드시에파ー氏監督
流線怪盜列車
第一回前篇十卷上映
旋風兒죤우엔氏決死의主演
名花샤ー래ー그래이孃助演
空中魔!飛機의猛襲과流線怪盜列車의驀進!亂走!自動車오도바이 地上利器의總動員으로冒險…冒險 :冒險의最高絕頂!그間에얼킨인 怪奇戰慄의事件과함께天地粉碎的 活劇의幕은열인다
코럼비아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대이가ー넷도氏
모ー던騎士道
죠ー지라프트氏 죤배넷트孃 主演
大都映畫超特作時代連續篇
白井戰太郎氏監督
第一篇 疾風蜘蛛鞘 近衛十四郎主演
貫鐵町 電光二三九五
優美館

六月十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英大刺戟사스토로비스超特作映畫 에릿히·엔겔監督作品
루돌프·폴스타 이레라·치로카 主演
名畫 鄕愁
당신의마음의문을두드리는鄕愁와도갓고、엄숙한사랑의悲哀와 失戀의寂寞과도갓치、處女心의 아름다웁、쓸쓸한사랑이당신의心琴을울려주리라
◆RKO라듸오超特作日本版
프랭크빽製作
쩡글의王者
動物園의猛獸奇鳥는어더케잡아오나?絕對거짓업는猛獸사로잡기冒險實寫映畫
◆日活超特作映畫
新選組 (前篇)
ー(次週封切)ー
米國의機密、晩春
(近日封切) 메추로포리탄、오페라햇、나는 우리동니재롱거리、뮤직끄라운드、렘풀의愛國者、天空을나르는音樂、노래하자이 밤을、메로니카의花束、虛榮의 밤、悲歌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當る十八日特別大公開
全京城六十萬諸兄姉に驚異の話題を提供する中央館が本年度に誇る
超特別豪華番組!!
晝夜二回興行
午前十一時上映開始(晝間一回入替ナシ)
夜間之部(六時四十分)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宇野千代 東京時事新報連載
脚色陶山密 監督勝浦仙太郎
オール·サウンド
雌雄
伏見信子·竹內良一 入社第一回主演
KOラヂオ社日本語版
製作フランク·バック氏
撮影ハリイ·イー·スワイア
ジャングルの王
猛獸生け捕り冒險實寫記錄映畫!!
爆發する戰慄!奔流する感興!旋回する馬蹄!貴方の一生で只一度しか御覽になれぬと申し上げてもい丶程壯快な物凄い映畫が參りました!!
新興キネマ京都超特作
原作吳淸權 監督松田定次
風流奴篦
大谷日出夫·毛利峰子主演
永樂町 電本二〇一番
中央館

六月十五日より六月二十二日まで
三中井吳服店御招待日は
二十四日です
上映時間表
第一回第二回第三回
女は何故怖い 一·五〇 三·〇〇 七·〇〇
植物の神秘 〇·六 三·六 七·一
お夏淸十郎 〇·三 三·三 七·四一
▲女は何故怖い
文化映畫
▲植物の神秘
▲お夏淸十郎
浪花館

地費萬餘圓繞圍 同和農場小作爭議

過去滿四年間을두고抗爭타 調停으로最後段落

【安岳】 사개년간이나 계속하야 소작인대 지주간의 소송사건은 그저간 이삼차의 공판을거치어 지난 십오일로써 일단락을 지엇스나 소작권을 일어버린세명 소작인은 계속항쟁할 결심을보여 그취어가다시금 주목을끌게 되는소작쟁의사건—지금으로부터 칠년전인 소화사년봄에 안녕수리조합(安寧水組)착공과가티 진남포가등평태랑(加藤平太郎)유원귀일(柳原龜一)령목조일(鈴木篠一)삼인의 합명으로 동화농장(同和農場)이란 약 일백칠십정보를 개간하얏는데 당시에 이주민사십이명의 소작인이 지균공사(地均工事)에 착수하야 만 어변간입보대급 지균 공사비의 전부를 동산하면 일만사천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장에서는 일문전도주지안는다하야 소작인 사십이인련서로 소화구년도에 관계당국자에게 수차나 진정 혹은 애원을거듭햇스나 한등효과를보지못하고 할수업시 소화구년도에 해주지방법원 민사부에 리보종(李補鍾)외십인의 련명으로 동농장주 삼인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하얏다 이로부터 소작쟁의가 악화하야 문제가확대되엇는데 이를진압하고자 농장측에서는 지균비일만사천원과 소송비용이백원까지 지불하기로하고 소송취하를하라고하야서 소작인측에서는 지주만밋고 허락하야 농장에막거둔 도장사용을 허햇는바 취하장에도 사용하고 또는 지주의명령 그대로준행하겟다고 맹세하는차입서(差入書)에 도임이로 사용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후는일문권을 주지안음으로 불가불 소송을제기하얏는바 해주지방법원에서 패소되엇다 패소와가티 소작권전부를해소식하면서 부채를 동족케되엇스니 패소의원인을 모르고작인들은 넘어도 억울함을 금치못하야 최후로 안악군 소작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얏다 그래서 지난십오일오전열시부터 대원면복사리경찰주재소에서 해주지방법원판사이견구(伊見久一)씨 충영에 방광진(方光鎭)씨의 출석을비롯하야 의공구군수이하 중야(中野)고등계주임 유마(有馬)내무주임 소작위원전승근(田承根)씨가 입회하고 지주측에는 유원구일이 삼인대표로 출석하고 소작인 삼인명도 출석하야 관정한바 재삼차나 번적 재판으로 승리한 지주측으로는 일인도 복구식힐수업다는 주장이 엇스나 참석한관사급 전반의 조정이 잇서서 칠명은 복구식히고 소작료전부를 내지안흔 림창두(林昌斗) 리보종(李補鍾) 송례헌(宋禮鉉) 송인화(宋仁華)네 명에게는 일백원식의 여비를주어 내어보내기로 되얏는데 작권을일흔 네명은 생명을걸고차 지균비일만사천원은 문제도되지 안케 업서진모양이고 작권일흔 네명의태도가 주목된다고한다

大膽한假刑事 無斷人家搜索

淸州署에被捉

【淸州】 지난십오일 오후팔시반경 서주면오태교(吳泰敎)씨의 집에 어떤자가차자와서『나는청주서의형사인데 오늘시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에 대하야 너를용의하게 되엿슴으로 가택수색을 하겟다』하고 선언한후 가택수색을 전행함으로 그집주인은 수상하게 생각하야 사람을 보내여 청주서로 알고 하야 서원이급행하야 그괴한을 검거하얏는데 그는절도전과자로 수일전청주서에서 훈계방면되엇든자이엿다한다

殺人的酷暑! 咸興地方에92.6度

【咸興】 기다리는비는 올듯도하지안코 쨍쨍하기만 내려쬐이고잇는 함흥(咸興)지방은 금각도로 긔온(氣溫)이노파저서 가두에는 벌서부터 맹하(猛夏)의위력에 놀려잇는듯한느김이엇는데 십육일에는 갑작이더노파저 구십이도륙분이라는 근래에업는혹서를뵈엿다 이것을 작년동일의 팔십이도오분에비하면 십도나노프며 전번중의최고온도인 팔월십구일의 구십이도사분에비하야서도 오히려 이분이나더놉다

이러한수은주의팽창으로 함흥시내에는 갑작이 전염병이 발호하야 십륙일에만 시내에서 칠명의장질부사가 발생하야 유아들의적리(赤痢)도 대창궐한다고한다

往日의痴情關係로 放火、殺人未遂

前科五犯의許富澤

【江西】 지난십칠일오전한시경에 강서군보림면 보산포구(普林面保山浦口)에서 살인방화사건이 생기엿다 피해자는 강서군보림면보산포구에서 료리업을 경영하는녀자윤수복(尹壽福)(二七)이요 가해자는 진남포부 비석리허린방(鎭南浦府碑石里許麟方)에잇는 강도절도사긔등 전과오범 허부택또는 허혁(許富澤又許赫)(三七)이라는 자로서 전긔윤씨와 이십여년전에 평양에서 동거하든중에 모든것이 불합리하야 피차에 작별하고 허가는 무정처로 로동자의 몸이되여 사방으로방황하게되고 윤씨는그당시에 어든남자와가티 강서보산포구에서료리점을 개시하엿든것 이다 그래서 약간의돈푼을 모으가지고자미잇게 지내든중 작년봄에 그남편과또 작별을 하게되엿든바 생각도 아니하엿든 녯날의 애인허가를 맛나게되엿다 허가도 이십년전에 애인이라 마음에는 사랑이가득하지만은 녀자의마음이 어찌되엿든지 몰라 때때로 술도사먹고하며 전일에동거하든 사정과 또는자긔의고생한사정을 말하며 윤씨에게위안도 하여보앗스나 절대거절함은 외라 상대까지 안하랴고함으로 허가는 너머나 분개하야 때때로 불만을품고 윤씨에게 말하기를 내칼로죽인다고 말하엿다 한다 그런중 지난십륙일 염진임성준(任成俊)방에서 술을 마신후 침입새벽에 칼을품고 윤씨의집에 들어가서 석유를 가득빠리고 사방에다 불을 질러논후에 윤씨를 칼노십여처를 찔넛는데 생명이대단이 위독하다하며 그급보를 접한강서서에서는 강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총출동하야현장을검증하는등범인수사에대활동중이라고한다

四十八萬"키로"의 鴨綠江水力電氣

交通機關電化와鑛山도電化 國境方面에關係多大

【新義州】 전력(電力) 사십팔만『키로』를 가진 압록강(鴨綠江)수력(水力)전긔는 개발의 제일보에들어 긔보한바와가티 관동국경제부(關東局經濟部)에서는 벽동(碧潼)과 조악동(造岳洞)이 개소의 조사를 하게되엿고 이보다먼저 총독부 초간(草間)기사일행은혜산진(惠山鎭)부근에서 압록강일대의 조사를하야 십륙일 신의주에 도착할 예정인데 압록강의 수력전긔 사십팔만『키로』를 개발하기로 결정이된 강안일대의 교통긔관전화(交通機關電化) 광산전화(鑛山電化) 만포선전화(滿浦線電化)로 평북은 회긔적 전화시대(電化時代)를 현출할것이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산업진흥(産業振興)이 긔대되여잇다。

◇……가……물……의……田……景 (群山府郊外所見)

安州郡下에 食刀强盜出現

金品强奪逃走

【安州】 지난십륙일야반십이시경에 안주군룡화면 용남리(龍花面龍南里) 김긔팔(金基八)씨집에 강도일명이 식도를들고 침입하야 현금약십팔원 오십전과 담배여섯갑을 강탈하야가지고 유유히 도주하엿는데 급보에접한 당지경찰서에서는 각처에 수배하는 일변 현장조사를하야 범인체포에노력중이라고한다

旱騷에染病까지 永興에赤痢猖獗

벌서患者가六百餘名

【咸興】 긔온이 갑작이 놉하저 가는 함남도내에는 때를맛낫다는듯이 일제전염병의 창궐이심하야 인심이 소란한가운데 잇는데 특히 영흥(永興)진흥면(鎭興面)일대는 매호에 거이다 유아들이 적리(赤痢)에 걸려신음하는가운데 잇다고하는데 아직은 사망자는업스나 신음하고 잇는 아동은 륙칠백명의 다수에 달하고잇다고한다

普校增築費로 一金千圓喜捨

金堤徐廷麟氏

【金堤】 호남선김제역전에서 정미업을 경영하는 서정린(徐廷麟)씨는 김제보통학교 교사증축비로 일금일천원을 회사하엿다는데 씨는 원래 빈한한가정에서 출생하야 겨우김제보교를졸업한후 김제역전 모운송점원으로 채용되여 오륙년동안 근로한후 자립적으로 정미업을 시작하야 사오년동안에 십여만원의 재산을모흔 삼십전후의 청년실업가인데 김제일반 인사는 씨의특지를 칭송하는동시에 장래김제사회사업에도 다대한 공헌이잇스리라고 밋는다고한다

十五萬圓工費로 蘭谷水利稧創設

【淮陽】 회양군란곡면조동리(蘭谷面槽洞里)일부와 봉동포리(鳳洞浦里)일부에 집단되야이백여정보되는 전답은 수리의 편리를 엇지못하여 상당한 수확을 보지못하게되므로 일반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든바 함남북청에서는 한태렬(韓泰烈)씨는 이에 늣긴바 잇서서 수리계(水利稧)를 창설할목적으로수년전부터 모든 설게를하야 오든바 그간 재반수속과 여러가지준비관계상 공사가 느저오다가 지난십오일에 제사회지주총회를 개최하고 조군수(趙郡守)참석와 란곡김면장(蘭谷金面長)참석으로 총회조항은 만장일치로결정되야 총공사비 십오만원으로경성좌등조(京城佐藤組)에게 락찰되어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바 준공긔는 명년상월말일까지라는데 그수리계가 완성되면 란곡면은 수전화(水田化)하여일반동가에는 큰 행복이도리라한다

第二回西朝鮮 蹴球大會開催

本報支局後援

【江西】 강서군사천체육회에서는 본보강서지국후원하에 오는단오절을 긔하야 제이회 서도선 축구대회를 당지 양덕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리라는바 벌서부터 대인긔를 끌고잇다는데각 선수는 작긔규정에 의하야신입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一、靑年部 加入金 二圓

一、少年部 加入金 一圓

一、申込場所 李西百貨店

金海運輸事件擴大 現職警部補에波及

慶南警察部에押送

【金海支局電報】 류보 김해운수주식회사(金海運輸株式會社)부정사건은 더욱확대되여 회사중역 사무원등을 검거취조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취조에 따라 모서현직경부보도 이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십칠일에검거하야 경남경찰부로 압송하여방금류치취조중이므로 사건진전은 더욱 주목을끌게되얏다한다

在奉初等學校巡禮記 【十】

歷史로도벌서十年餘 奉天에서偉大한存在

◇……現在百餘名英才를保育

西塔幼稚園篇

『아버지유치원갑니다 어머니다녀오겟습니다』하고 고개숙여敬禮하고는 문을열고룽룽뛰여나가는善童들이뒤를따라다섯 西塔禮拜堂아렛칭이바로西塔幼稚園이다 문안에드러서니 어느분이先生님인지 아려보지못하리만큼先生님가슴이가만다 其中에서제일年齡이 놉하보이는분을向하고人事를請하엿다 이분은 유치원先生님이 아니고 유치원어머니學校인 奉天保姆傳習所先生님金仰熙女史이시다 西塔幼稚園과이 保姆傳習所와는 한門안에잇고 教室만이 따로잇슬뿐이다 金先生님의 案內로 幼稚園保姆로게신 秦賢卿先生을 붓잡고 이유치원狀況을 뭇기로하엿다—

一九二六年三月에 當時西塔教會의 牧師로게시든 白永燁氏의 發意로 奉天朝鮮人基督敎婦人傳道會에서 經營케되여 白牧師가 設立者兼園長이되시고 同年四月十五日에 園兒四十六名을 모아서 開園하얏다고한다 잇태를지난 一九二八年四月에는 園長趙鼎華氏를 마지하야 今日에至하기까지 男子百三十名 女子百九名合하야 二百三十九名이나되는 將來朝鮮人의 主人公을 길러내엿고 現在에도 男子五十名 女子四十一名近百名이나 되는 俊才를 培養하고잇스며 先生님은 秦賢卿 張榮淑 朴惠信세분이시다 經常費는 一千二百圓이나되는데 奉天居留民會에서 二百圓의 補助를밧고 西塔教會에서二百圓과 授業料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고한다 歷史로보아 十年이란짧지안흔 동안에 數만흔才媛을길너내시기에 西塔教會의幹部諸氏와 유치원의 歷代先生님들이 만흔苦心을 햇어슴은 勿論이어니와 現職園長이신 趙鼎華氏와 會計 李惠德氏의 功勞가—特히 크다고 한다 上記兩氏는 今春에 十週年勤續功勞의表彰까지 바더다고 한다 엇젯든 奉天에잇어서 우리 敎育機關가운데 歷史로나 狀況으로보아 偉大한存在이다 중소때가나니 귀여운어린이들이 가방을등에지고서를때드려온다 先生님보곡『안녕히주무셧슴니까』하고 모조리 人事한다 入園한지 얼마되여보이지안는아직 挨拶을모르는듯시픈 아이는 先生님보고도 손가락만빨고서서 人事를하야先生님을 피롭게한다 記者亦是小學時代에 어떤 中華附屬學校에 단니든關係로 中華先生님小學先生님승들려저서 先生님이명우만아서 어떤先生님께 人事를하엿는지안하얏는지모르고 한 先生님한테 아친人事를세번씩이나하다가 人事가 넘우자저서 탈이라는先生님의말씀을듯고는 넘우나부끄러워서 죽을지경이엿다 이園兒를보고는 옛날에부끄럽든 그時節을생각하고도라서서 혼자우섯다 敎室안에는 마루방에넓다랏케 희락라인놓들너굿고 百名이나되는 園兒가 椅子에돌려안저서『옥강』소리에 맛추어서『玉톡기는깡동』하는 노래를 부르며 깡동깡동 춤을추다 얼골들이가옷통거리며 노래부르고 춤추는양은 말할수업시귀엽다 노래와춤이 한참무르닉어슬때에 우줄매려다는아이는 助手들이 떠리고나니가 오줌두여주고 차호는아이는 자리를밧고 아안치다 先生님은 熱心으로注意事項을 말상하시는데 엇더아이는 아직도 흥에겨워서 춤을 추고잇다 엇잿든 모든것이 귀엽고 아름답게만보힐뿐이다、記者는 도라서지안는발길을 돌니여 校門을나서니 마치仙境에서 俗世로逐出이나當한感이업지안타

寫眞은 幼稚園保姆傳習所職員生徒一同과園長趙鼎華氏

附記

巡禮記쓰기를마치고나니 記者의鈍筆을다시금 限하게되다 열한곳의學校를 一一히 巡訪하는동안에 記者의분에넘치는厚待라든가 또는 여러가지로指導하여주시고 參考資料를만히 提供하야주신 여러분先生님께 感謝하는바입니다 압프로도朝鮮日報를爲하야 小生輩에게指導와鞭撻를앗기지 마시옵기를 바라나이다

奉天支局 金奉權 金長圜白

邑稅査不正타고 邑民不納으로抗議

他地方標準을盲目的適用에 雄基邑의無責任非難

【雄基】 웅기읍에서는 읍민에게 부과한세금이 과중하다하야 읍민의불평은 갈사록노파간다하믄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읍에서는 일단사정한이상에 사정재심사할 수는업다는데 읍민들은 납세불납(納稅不納)으로 대응하야 사정이불공평함을 철저적으로 구명하기전에는 납세할수업다하야 지난십오일오전열한시경에 상공계유지열흠일행은 읍장을방문하려고하엿스나 부재중이므로 부읍장이대리로 읍회의실에서 백열적질문전이 전개되엿다 일행은 금번도세금사정은 납세자의수입을표준에서 부과햇다 하니 금번가튼해에 면포(綿布) 잡화에대하야 이익은 고사하고 결손을보고잇는상인에게 근거업는 일할삼분오리에해당한이익을 어떠습것이다 하는 추상적사정을한점으로든지 또는쌀한가마에 오변이나 십전에불과한이익을보고잇는 포곡상에게 오분이라는이익이잇섯겟다는것도 현격한차이가잇다는바전 연조상만하고 실지조사를하지안코 사정한것이 근본적으로 틀린것이 아니냐 부읍장답변에 실지조사한표준에 과인해서 사정한것이니 잘못된점이업다는등 묘답이잇섯다 더욱일행은 조사자료의 제시를추궁하자 읍직원이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한관계로 실지조사를못하고 경흥군(慶興郡)에서 조사한표준에 의하야 사정햇다그리고 곡물에는 실지조사하라는공문도잇는데 실시못한것은 잘못되엿스나 이미결재한 이상에는 재사정할수는 업스니 일괴분만 납세하면 이크에게서 잘못된점을 감소청정신청을 할수잇다고 답변하엿다 그러나 일행은조곰도 구피지안코 이책임을 어디까지든지 뭇기위하야 군당국에 질문하기로하고 일행은 군당국을 방문한바 군에서 역시실지 조사한 사실은업고 다만 서수라(西水羅) 라진(羅津)에서조사한것을 표준햇다는 애매한답변에 더욱 분개하게 되엿다는데 모든실정이 다른지방에서 조사한표준을 옹기에다가 적용한것은 무책임하다하야 어듸까지든지 책임을추궁하리라는바 금후 사건의전개매우가주목된다고한다

簡易校에寄附

回甲宴을廢止

【長湍】 경긔도장단군진남면정동리(長湍郡津南面井洞里) 김긔완(金基完)씨는 전부터 장단사회를 위하야 만흔사재를 희사하야 왓섯는데 금번 회갑을마지하게되엿스나 연회일체를중지하고 그비용으로 당지간이교(竹葉簡易校)신축비로 삼백원을 긔부하얏다는데 당국자는 물론일반의칭송이 자못크다고한다

第二回全朝鮮 脚戲、鞦韆大會

【新昌】 함남신창항에서는 년중행사의 하나인 단오절을 긔하야 전조선각희대회와 밋녀자추천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바 벌서인긔는 최고봉에 달하야 금년은 특히례년보다 대성황을 예과하고잇다한다

一、時日 陰五月五、六兩日間

一、場所 新昌假設運動場

◇鞦韆部賞品 一等 金指環一雙 二等 大時計一個 三等 鏡臺一個

◇脚戲部賞品 一等 現金百圓 二等 五十圓 三等 二十圓 四等 廣木一疋 五等 白木二疋 其外賞品山積

◇主催 新昌市民組合 肥料組合 魚商仲買組合 飲食店組合

◇後援 朝鮮日報外一支局

信川서도全朝鮮 脚戲、鞦韆大會

【信川】 신천군궁흥면 삼천온천 (弓興面三泉溫泉)시민주최 본사지국후원으로 오는단오절을 리용하야 전조선각희와 서선추천(西朝鮮鞦韆)대회를 개최되야방금준비에 분망중인바 당일의성황을 예긔하며 시일장소 상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時日(脚戲陰五月四、五、六日三日間)

同(鞦韆陰五月五、六日二日間)

一、場所 三泉溫泉運動場

◇脚戲部賞品 一等八十圓 二等三十圓 三等廣木一疋 四等日木一疋

◇鞦韆部賞品 一等純金指環一個 二等대야一個 三等鏡臺一座 四等大盒一個 五等바리一個式(三人)

가물의淸州 二十七個所에서 一齊祈雨祭擧行

今十九日을期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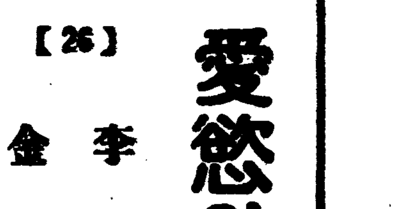
【淸州】 청주지방의한소는 극도에 달하야 잇는데금 십구일 오후구시에는 청주군사주면관내이십칠개소에서 일제히 긔우제를집행하기로되엿다한다

地方人事

▲張吉煥氏(江華釀造株式會社專務代理) 新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愛慾의彼岸 【26】

李光洙 作 金康福 畵



『언니두、왜 그러케 말을 해?』

하고 혜련은、모처럼 수줍은의 고요하괴 종달이 소래에 갈아안즌 마음을 흔들렷다、고 생각하면서、좀 섭섭하엿다。그러나 혜련은 곳、문임의 불상하고 원망스러운 신세를 생각하여서 마음을 도로 잡앗다。

혜련은 문임의 곗으로 다시 몰아와서 그 어깨에 손을 집흐면서、

『언니。내가 속에 걱정이 생겨서 그래。그래서 언니허테 의논을 하자구』

하고 애원하는 태도로 문임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엇다。

문임은 무안도 하고 혜련의 제게 대한 진정이 눈물겹기도 하엿다。

『혜련이。내가 몰어 그래서。노아지말어』

하고 한 팔로 혜련의 허리를 안고 경음을 옴것다。

그러나 혜련은 제 속에 잇는걱정을 문임에게 하소연할 흥미가 다 깨어지고 말앗다。

문임이 편에서 미안해서、

『혜련이 노여지말어。어서 말을 해』하는 재촉을 밧고야혜련은 비로소、

『언니。도모지 세상이 구찬어』

하는것을 허두로 이야기를 꺼내엇다。혜련에게는 정말로 도모지 세상이 구찬흔것 가탓다。인생에 별로 탐탁스러운 것이 잇는것 갓지아니하엿다。

혜련은 설은주에게 대한것과 임준상에게 대한 말을 대강대강 하엿다。시들한말처럼 말하엿다。그러한 끄레、혜련은、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조하。나는 진정말이지、언니、사랑이나 혼인이나 다시들해요。세상사람들이 조타구들 떠드는것들이 모두 시들하구 구찬다。

카만 예、그러치마는 옥주라는 사람이 그얼두해서 어떠케 되기나 하면 어쩌혀우? 설마 죽지야안켓지마는、나려면 그리편잔을 밧구——그게 어떠 사내가 당할 노릇이야、그런 착퍼를 밧구 우러 전애닷슬것 갓지를 아니하단 말이야——안그러수? 꼭 달아낫겟만 갓든말이야。그러니 그이가 어떠루 가우? 도모지 일가치척두 조선에는 업는 사람이라는데、돈은 엄구。일주일상이야 그저 예사연애편지두、내게만 한편지두 아니것지마는——편지가 익숙한투가 벌서 그런 편지를 한두번만 써본 솜씨는 아니어든』

하고 잠깐 말을 멈추고 웃는다。거실 혜련은 준상의 그편지가 오직 제게만 온것이것을 바라기도 하고 밋으려고도 하엿지마는、그래도 밋고밋던 아버지에게 의심을 품게 되던뒤로 부러는 아모러한 사내의 마음도 밋을수가 업는것。가탓다。준상과 가티 얼굴이 번지그르한 대학생이 아직도 숫총각일것 갓지는 아니하엿다。혹은제집에 본처가 잇는지도 모르고 혹은 이혼을 햇는지도 모르고、그러치아니하더라도 멧녀자를 건드리기까지아니햇스리라고는 민어지지아니하엿다。하물며 마음까지의 동정 그것을 바랄수잇으랴——혜련은 이러케 생각하고 벙그레 웃엇다。

『무엄 그럴라구。그이가 글을 잘쓰니깐 그러치』

하고 문임은 준상의 동향한 풍채를 생각하면서 그를 변호하엿다。

『언니는 사내들을 그러케 쉽사리 밋수?』

하고 혜련은 또 문임을 보고 웃는다。

『사내들을에두 밋을 사람두 잇구 못밋을 사람두 잇지。사내들이라구 다 가튼가』

하고 문임도 웃는다。그는 자긔를 사모하다가 병들어죽은 순실한 시골 청년을생각에 그랫다。

독매 신긔하게근치되는매독약 ネオ、スピロヂン 藥價 五圓 七圓 京城鍾路 大同製藥社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寧邊支局 位置 寧邊郡邑內

右任 支局長 金致桓

右解任 支局長 鮮于海星

謹告

古陽支局 泰平分局長 金啓渢 右新任

苦灘支局 記者 鄭洛倫 右依願解任

遂安支局 總務兼記者 金仁鎬 右新任

奉天支局 山城鎭分局 電話 一二〇

淸津支局 總務兼記者 崔致勳 記者 盧會濂 寫眞班記者 朴根實 右新任 電話 七二六番

購讀申請所 新岩洞 三信商會 東海岸 中央理髮館 新興洞 友利商會 水南洞 水南食料品店

水原 第三回 畿湖庭球大會

▲時日 六月二十一日午前八時

▲場所 驛前東山農場코트

◇主催 水原運動俱樂部

◇後援 朝鮮、外三支局

長湍 蝀龍窟探勝團募集

▲出發 時日六月二十二日 午後八時五十五分

◇旅費 七圓六十錢(車費及食費)

◇主催 朝鮮日報長湍支局

山城鎭 全滿洲蹴球大會

▲時日 六月廿三、四兩日間

▲場所 山城그라운드

◇主催 朝鮮日報山城鎭支局

◇後援 市民一同

京南 全朝鮮쓰름大會

▲時日 六月十九、廿、廿一日(三日間)

▲場所 梨泰院普通學校前廣場

◇主催 梨泰院普校昇格祝賀協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各國輸入制限網

國際間貿易動向(上)

全世界에잇서 日本經濟動向은 貿易制限如何에 依하야 決定케될 形便이다 그러나 世界的傾向은 三角貿易其他 貿易調整手段에 依하야 輸入抑制 輸出促進을 圖함에잇다 그結果 日本商品은 거의 世界的으로 排斥을 當코잇는바 이에關한 日本對外貿易의 入超出超關係를 各國別로보면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圓 △入超額, 그外는 出超額)

一、日本이入超의關係에잇는諸國(卄八個國)과 그入超額

國別	昨年	再昨年
濠洲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濠領亞細亞	[illegible]	△[illegible]
佛領印度支那	△[illegible]	△[illegible]
英領 馬來	△[illegible]	△[illegible]
英領 印度	△[illegible]	△[illegible]
英領보르네오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瑞西	△[illegible]	△[illegible]
墺地利	△[illegible]	△[illegible]
체코슬라비키아	△[illegible]	△[illegible]
波蘭及단치히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及盧센부륵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芬蘭	△[illegible]	—
瑞典	△[illegible]	△[illegible]
諾威	△[illegible]	△[illegible]
葡萄牙	△[illegible]	[illegible]
西班牙	△[illegible]	△[illegible]
北米合衆國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墨西哥	△[illegible]	△[illegible]
秘露	△[illegible]	[illegible]
에리트리아	△[illegible]	—
伊領소말리란드	△[illegible]	—
濠太剌利	△[illegible]	△[illegible]
길버트及諸島	△[illegible]	—
소시에테諸島及에키리스	△[illegible]	—

【註】 關東州를包含

右中關東州를 加하야 計算하면 輸出超過이며 中國은 貿易統計에 안나타난 것을 考慮하면 輸出超過로되고 蘇領亞細亞는 從來入超의 相對方이엇스나 昨年에 北樺太産代金支拂의 關係로輸出超過를 示하엿다 墨西哥及秘露는 從來出超國相對國이엇스나 昭年부터 入超相對國으로 轉換하엿다 에리트리아, 伊領소말리란드及에키리스 소시에테諸島는 從來 入超相對國이나 이것은 出超國이나 昨年에는 出超國으로 轉換되엿다

二、日本이出超의關係에잇는諸國(七十四個國)과 그出超額

◇滿洲關東州 [illegible]
◇亞細亞洲

國別	昨年	再昨年
關東州	[illegible]	[illegible]
香港	[illegible]	[illegible]
海峽植民地	[illegible]	[illegible]
暹羅	[illegible]	[illegible]
比律賓	[illegible]	[illegible]
세일롱	[illegible]	[illegible]
이락	[illegible]	[illegible]
시리아	[illegible]	[illegible]
팔레스타인	[illegible]	[illegible]
아라비아	[illegible]	[illegible]
아덴	[illegible]	[illegible]
사이프러스	[illegible]	[illegible]
蘭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歐羅巴洲

國別	昨年	再昨年
英吉利	[illegible]	[illegible]
愛蘭自由國	[illegible]	[illegible]
佛蘭西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丁抹	[illegible]	[illegible]
지브랄타르	[illegible]	[illegible]
希臘	[illegible]	[illegible]
土耳古	[illegible]	[illegible]
말타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北亞米利加洲

國別	昨年	再昨年
其他	[illegible]	△[illegible]

◇中央亞米利加洲

國別	昨年	再昨年
과데말라	[illegible]	[illegible]
혼두라스	[illegible]	[illegible]
살바도르	[illegible]	[illegible]
니카라과	[illegible]	[illegible]
코스타리카	[illegible]	[illegible]
파나마 運河	[illegible]	[illegible]
파나마	[illegible]	[illegible]
쿠바	[illegible]	[illegible]
하이티	[illegible]	[illegible]
도미니카	[illegible]	[illegible]
구라리코	[illegible]	[illegible]
몬트·빈센트及트리니다드及토바고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南亞米利加洲

國別	昨年	再昨年
智利	[illegible]	[illegible]
亞爾然丁	[illegible]	[illegible]
우루과이	[illegible]	[illegible]
伯剌西爾	[illegible]	[illegible]
佛領구이아나	[illegible]	[illegible]
英領구이아나	[illegible]	[illegible]
베네쥬엘라	[illegible]	[illegible]
콜롬비아	[illegible]	[illegible]
에콰도르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燒酎、麥酒 "專賣"調査研究

麥酒는昭和七年에이미成案

朝鮮獨自立場에서

▲棟居專賣局長談 煙草의成育은 旱魃에는 相關업스나 麥의收穫이 遲延되매는 從하야 移植의季節도 느저서 조치안타 요즘은 四、五月頃에 降雨가마하서 現在는 前年보다 成績이不良하나 今後天候가順調이면 依復될것이다 專賣事業의 擴充에就하야서는 여러가지로傳하나 民業에關係가잇슴으로 輕忽히말할수업다 그러나 調査하는것은 相關업슴으로 朝鮮은 獨自의 立場에서 調査硏究할라로 今回規格係를 新設하야 調査키로되엇다 朝鮮서擴充한다면 위선麥酒와 燒酒일것이다 麥酒는昭和七年에 成案이되엇슴으로 이에基하야調査를 進하면조타

朝鮮中小商工業

總四十四萬九千戶

最近總督府의調査에依한즉 朝鮮에서 所謂 中小商工業으로볼階級은 四十四萬九千戶에達하는바 그內容은 다음과 갓다

▲都市=商業者 一三六、五一九戶 工業者四一、三七五戶 合計一七七、八九四戶
▲農村及地方=商業者 二〇九七五三戶 工業者六一、九四四戶 合計四九、五九一戶(?)

此等 所謂 中小商工業者에對한 經濟伸張施設은 都市金融組合、產業組合、同業組合等이 잇스나 實은 都市金融組合의活動에不過하고 그施設은 顯著히不備한터이라고한다

諒解成立

세멘트紛糾 聯合會와小野田

【東京電話同盟】二年百日에 亘하야 紛糾이던 세멘트聯合會와 小野田몐트의 協定에 對해서는金子聯合會理事長과 笠井小野田社長間에 十一日以來 數回에亘하야 協議한結果、十七日에 根本的諒解가 成立되어 笠井社長은 商工省에 後藤合理局 第一部長을 訪問하고 그旨를報告하얏다 그리고小野田몐트이 聯合會에 復歸할與否는 未決定이나 從來의 對立抗爭의 關係上 笠井社長은直時 復歸치안는대도 聯合會間에 協定을 締結하면 實際的效果는 變치안타는 意見을가지고잇고金子理事長도 또大體同意見임으로 우선 세멘트聯合會와 小野田몐트間에 何等의 協定을 締結하고 統制法에依한 生產協定과 倂立케하야 統制協案等도 考慮되어 잇서此等의點에對하야서는 笠井社長이 十八日夜一旦小野田本社에 歸하야根本을協議하는一方金子理事長은 十九日開催되는 理事會의 意向을徵한後再次 協議하기로하고 來月初에 最後的決定을보리라한다

預金貸出減少

六月京城組銀

京城組合銀行十五日現在의 預金貸出高는 預金合計一億五千二十五萬四千圓、貸出一億六千百八十六萬五千圓(殖銀의 公共產業貸를除함)으로 前月末에比하야 預金五百四十六萬四千圓、貸出百八十五萬一千圓의 各減少이오 前年同期에比較하면 預金五百六十二萬五千圓、貸出一千九百三十二萬圓의各增加인바이제各種別預金貸出高를示하면如左하다(單位千圓)

預金

定期預金	八〇、一七八
當座預金	三〇、五〇三
特別當座	三三、九三九
通知預金	八、二四一
諸預金	八、三九三
合計	一五〇、二五四

貸出

證書貸	一五、〇五六
手形貸	一一九、九四四
當座貸越	八、四九九
割引手形	一四、九三九
荷爲替手形	三、四二七
合計	一六一、八六五
有價證券	二三八、九二六
預置金高	七、八八四
金銀在高	七、七四五

組銀證券手持減

六月十五日現在의 京城組合銀行有價證券所持은 一億三千八百九十二萬六千圓으로 五月末日에 比하야 一萬五千圓의 減少 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千四百八十五萬七千圓의增加이라고

朝石特約店決定

朝鮮石油의 販賣特約店은 目下希望者의 信用狀態其他에對하야 調査中인데 第一

朝鮮適用을力說

重要產業統制法

產業合理局顧問會에서

【東京電話同盟】小川商相就任後 처음인 產業合理局顧問會議는 十八日午前十時부터 商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大河內子以下各顧問、關係官出席、小川商相、池田、吉野兩次官以下 關係官出席、小川商相의 就任인사가잇고 會議에入하야 後藤第一部長이 重要產業統制法의 改正要旨를 說明하고 議會에서論議된點에對하야 報告한後 세멘트工業에關한 增產中止協定에對한 統制法第二條의適用은 來二十六日로써 期限滿了임으로 이것의 延長에關하야 세멘트聯合會의 申請에基하야 更히 六個月延長한다는旨의 諒解를求하고 各顧問官도 異議업시承認 來二十四日統制委員會를 開하고 附議키로되엇다 重要產業統制法의 外地適用에關하야서는 當局側으로부터 議會에서 鮮明한것과가티 目下拓務省當局과 折衝中으로 近間內外地를 通하야 實施할旨의 報告가잇섯는데 顧問側에서는 外地適用의 必要인 旨를 强調하고 速히 이것의實施를 要望한바잇섯다

"鮮滿拓殖創立"

具體的準備에着手

鮮滿拓殖株式會社令은 十八日부터 施行되엇슴으로 同社理事가 될 渡邊豐日子氏를 中心으로着創立準備를 進하고 近間創立準備委員을 擧하는同時에 株公募를 發表하고 株引受를 決定한後七月中旬頃에 創立總會를招集할터인데同社總裁選擧에對하야 總督府當局으로서는 重大使命을 有한 同社의 創立에 際하야總裁以下重役의 人選을 할意向을 가지고 잇는바 四圍情勢로 아즉 表面化치 안햇스나 今井田政務總監의 交涉에 依하야 創立總會直前에 急速히人選을 終了하리라한다

朝鮮內政府古米流入

◇……蓬萊米도大量移送豫想

【門司電話同盟】 門司米穀事務所管理의 政府古米는 鮮產者 지 地場大口鑑及大阪潮先等의朝鮮逆送은 이相當히買付하고 地場江口 商店은 群山沖의 十一圓九 十八錢으로 最高價의十一 圓五十八錢에比하야 四十錢 米의擴下를 要望하고잇는此 際在目되며 出超期接近의一 部倉庫整의 朝鮮內大量移送 在庫도大 期蓬萊米의 相當히 가저 올의 地場商人의 最高價에依한買 收와 糯米飢饉소리가놉은天 津以北에移送되어 一部倉庫가 空하게되는도 한다 [illegible]

고무工場 操短休業

朝鮮內續出

朝鮮內의 고무工場은 今年初來의 原料高에도 不拘코 日本內地製品의 壓迫輸出不振等으로製品低의 現象을 連續하야 最近의 朝鮮內消費는 漸次日本內地製高級品에 轉向하는 傾向을繼續하는 結果、南朝鮮의 各工場은 操業을 縮少하는一方亂立의 中部、西部에서는 更히工場採算이 惡化하야 休業工場이 續出하고 그將來가 憂慮되다한다

北鮮製紙에서는 人絹팔프에着手

三萬噸의生產豫定

人絹팔프의需要는 人絹業의躍進에다가 例의스테이플、파이바增產機運에直面하야 그總需要高는 十五萬噸을突破할狀況인데 一面 日本人絹팔프는二萬五千噸의 生產으로는 王子製紙二萬五千噸과 北朝鮮製紙에서는 이形勢에備하야 突然計劃을變更하고 今年七月부터의 구라푸로팔프製造를 人絹팔프製造로 變更키로決定하얏다 同社에서는 總督府로부터 原木三十五萬石의 供給을受하야 今年十月 工場竣成後 第一期로서 구라푸로팔프二萬噸의 生產을 行하고 第二期로서 人絹팔프三萬噸의 生產豫定인바 上述의 經緯로 總督府의 諒解를 得하야 製造轉換을 行키로 되엇다한다

米日爲替反落

【京城十七日發同盟】十七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卅九弗四十九仙으로 七仙低 買卅九弗四十六仙으로 八仙低

▲東京爲替(十八日)
對米 賣卅九弗十六分七 買卅九弗二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一 買一志二片卅二分三

▲大阪爲替(十八日)
對米 賣卅九弗十六分七 買卅九弗二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一 買一志二片卅二分三

取引停止

(六月十五日)▲京城府御成町二二番地 金剛堂關泳照 ▲京城府公平町一一〇番地漢府商子店 李鍾緒

▲上旬煙草賣渡高=專賣局六月上旬製造煙草賣渡高는 百三十九萬四千六百十五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割九分九厘의 增加이다

經濟界消息

○專賣創業記念競技會=煙草小賣人協會京城地方協會에서는 七月一日부터 二十日間 專賣創業十五周年記念으로 京城支部管內의 煙草小賣店舖裝飾競技會를 열기로된바 優秀店舖佳作店에 對하야 賞品及褒狀을 授與할터이라고

○日本石油京城支店閉鎖=日本石油에서는 八月로부터 朝鮮石油開業과 同時에 京城支店을 閉鎖하고 業務一切를 朝石에 引繼키로 되엇다고

經濟寸鐵

麥酒와 燒酎의 專賣를 朝鮮專賣局이 調査中

○

지금의 燒酎가리 財閥統制로 하는것보다는 참아리 專賣가 可?

○

政府古米 朝鮮逆送 蓬萊米도 大量移送되리라고

○

朝鮮안에 쌀이업는까닭이 아니데 웨그럴가? 速히 朝鮮內에保管한 政府米二十六萬石을 拂下하라

商況(十八日)

朝取新舊 爆發

株式

前場堅强 今前場도 東新日產은 採合不動이나 鐘新百五十九圓五十錢 朝新二十九圓四十錢 朝取七十一圓으로好勢이엇다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暴騰 後場은 朝新二十九圓五十錢、東新百三十二圓四十錢에寄付後朝取七十五圓丁、朝新三十圓八十錢에 爆發이고 其他도强堅하게大引

朝取新舊爆發

米豆部買賣股盛으로 業績樂觀연 朝取는 日前朝新에 買人氣를呼하야 二十九圓五十錢의高價에進하고 二十九圓臺堅持이더니 今後場에는 朝取가七十五圓丁의 高價로 奔騰되고 朝新도 三十圓八十錢에 好勢이엇다

米豆部는 天災期를 알푸고波瀾이 豫想되는만큼好材이繼續될것갓고 或은下期大增配가잇슬지도 모르나朝新은 갈어조흘수잇다면 實株의繁物이 만히나올것임으로 一氣奔進은有力仕手의 出動이업시는어려울것도갓다 朝新三十圓以下는 割低라고도 할수잇슴으로 短期取引으로하지말고 採算的으로增配를期로 實株를사두고 長期를가지고잇스면 値上도相當한 것이잇슬것가티 보이엇다

保合圈離脫難

昨年度 豫算은 三十億이나 되다고傳하나 市勢一向無變이오增稅程度 革新政策의 根本方針은來月初旬에 決定되리라 함으로그때까지는 態度를 愼重히 하는것갓다 그런데다가 中國의抗日轉換도 양이라던가 貿易悲觀이라던가 法貨動搖라던가 嫌忌할材料가 잇슴으로 保合圈을 離脫치 못하는모양이다

雜株整理程度

雜株整理難究形勢이것 가트나그整理는 部分的이겟고 이것저것한꺼번에 落潮를示한것은 아닐것이다 目前買目標가 업슴으로 金融緩慢과 低金利의支柱가잇드래도 步一步低移되고서 新指標를 기다리게되리란말이잇다

大勢的强氣論

明年度豫算案은 軍部의態度로보아 大膨脹이 必至이오 그結果 將來필財政인푸레景氣출으로抑制할수잇슬가 株式市場은『거품』景氣로 熱狂狂騰으로 立會中止가튼 일이잇고아말것이라고 지금은 想像조차할수업는大强氣論이 잇서 興味觀되다한다

短期配當落

十七日、京城組氣二十七日 淺野新二十七日 大阪商船二十七日 西朝鮮合同新二十九日 朝鮮無盡二十日 各配當落이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期米 賣過反動 引返

前場浮動

昨後場阪地 三十四圓二十錢止와共히 當市場도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四圓十六錢인四丁反落을 擔하고 三十一圓九十九錢인 昨止同様으로 場을始한後 阪地二十錢의 小高를 딸아十七錢까지 跳返하엿다가 阪地十八錢三番同價로止場함을 伴하야〇二錢까지 反落止場하엿다

後場反高

後場은 三十二圓十一錢에 九丁高로 始場後十九錢四本 同價로 引高이고 十六錢에 止場하다

市場六感

(株)……東新은 百三十二圓九十錢(東京)이도나오고 다시三圓臺前引 할모찌아인나 結局大分岐가 잇슬것이나底堅인듯한듯 氣迷만益甚▲鐘新은拂込을 材料로도吸載하고 朝取新舊는 業績樂觀買▲朝新에有力仕手가 出動하면구경거리는 되겟는데……◆오래간만에 또『や』字의弱氣나紹介할가◆에디오피아問題를누가 미리알수잇섯고 二、二六事件을 누가알엇스나 무엇던가 市勢란 天井치고는 大底入 大底入後는 반드시 天井을치는 法이다 大底入된 이市勢는天井칠때까지 買一途라고 氣焰萬丈

(米)……구물구물한天候는一大好雨를招來할뜻하고도 依然曇天뿐으로 細雨濕衣看不見의雨를바라게아니되니 可謂七年大旱에無日不雨라는 狀態와如하군▲北支那의高氣壓이 東方으로 向하여오라고 그러면東支那에 잇는 低氣壓도希望이업슬모양 ?▲當地의市勢는東阪其他各地에比하야 賣過의嫌이업지아니하마는 二、三十丁反撥은잘아리當然 ▲아마도三十二圓七十錢은 當分天井이되는모양인즉 買固執만하다는것도 考慮할일

降雨可望업다

二、三日內에는

昨日부터 陰鬱한天候는 今明日까지 繼續하야 養雨의形式을取하나 그러나 昨日木浦의驟雨와 秋風嶺의小雨는 一時的樂觀을呈하엿을뿐으로 그雨量은 注目할餘地가업고 其他는 曇天뿐이니 二、三日內에는 降雨의可望이업슬모양이다 樺太島東海岸에七百三十七미리의 優勢한低氣壓이잇서處處에降雨가잇고 또日本海、朝鮮으로부터 黃海、東支那海方面은 氣壓의 谷이되어 東支那海에微弱한 低氣壓이 잇스며 朝鮮은 어느곳을 不問하고 靈天이나그러나 北支那에잇는 低氣壓이 徐徐히東方으로 追到할모양임으로 明日부터는 西朝鮮方面이 多少晴間이잇슬리라고 觀測所는發表하엿다 要하면 近日朝鮮半島에 빼치어잇는 高氣壓은그勢力이 衰하는모양이나 北支那의 新高氣壓이 또東進함으로 東支那의 高氣壓勢力에 自然驅逐進하는 高氣壓勢力에 新低氣壓이 發生하기外에는 天下農家의歡心을 줄만한降雨가 업슬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公債市場은 急變化되어 國債는 十錢上伸이오 米貨債도 五、七十錢 佛貨도 十五錢 되엇스며 更히 佛貨債는 銀行側의 決濟關係의 處分도 大體一巡되어 此處置分은 堅調가 繼續되리라한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三〇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一〇一、五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五五	

賣過의反動高

當分保勢乃己?

最高公定米價에 接近한各地市勢는 實方의警戒利益와 때마침朝鮮天候의 陰鬱으로 養雨의光朕이잇는듯한것을 機로한 實方의優勢한賣物이 輕轉하야 當地는今月의高價인 三十二圓七十錢에서 八十三丁이 奔落을 招來함에至하엿다 그러나 阪地는 四十錢丁의 低落에 止할뿐이니라 當地는賣過의嫌이 업지아니하야 依然三十丁의 反撥을示하엿다 그러데 今後의市勢가 또如何히展開될가함에 對하야 一考를要한다면 逐遠한將來의高下는 未知數에付하지 안흘수업스나 그러나目前의形勢는 公正米價의接近으로 買方이 驅入的行動을 加하지못하고 그反映으로는 麥作의凶稔도卽 旱魃繼續으로 植付難의悲觀을보하는此際이라 그럼으로 市勢는當分 保勢로三、四十丁範圍에서 繰返하지안흘가한다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

朝鮮高에買伴하든 市勢도 期內에依한反落으로 秋派의追擊과 嫌氣賣로 崩落하얏스나市勢는 今朝押目一巡으로보는 强氣의買直과 秋派賣込警戒로 回復步調로轉하얏스나 高價에는秋派의 賣實로 上伸을限止하고 賣秋共히材料一巡으로 突込警戒이다

●賣方=中商側、北國側、東京側
●買方=地場小口、地場目前側、地場利喚、藤田自己

各地正米

京城漸落

依然賣希小口買에 不過하나 今朝來의 오기도하고 곳치기도하는 降雨不調로市勢는 또二十錢低唱이엇다 丸仁三等 三十一圓六十錢 四等 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五十錢

仁川引弛

定期의伸惱를보고 買氣이 全혀업고 氣配二十錢引弛이엇다 丸仁三等 三十一 圓六十錢 四等 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釜山不變

淸算의 一息模樣으로 거의傍觀되나 市場은賣物이尠으로下支되어 市況保合이엇다 角フ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二錢

大邱保合

値頭警戒人氣로 賣買一息이나 依然히 旱魃念慮로市況은 頑强히保合이엇다 角

群山底堅

賣物이적고 買方이總傍觀人氣로 市況은 極히 閑散場面이나 移植不安念慮로底堅保合인 菱ク三等三十二圓丁四 等三十一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 圓八十錢

木浦閑散

依然移植不安人氣와 時季待로 一向賣氣가不添하고小口側의 注文이잇슬뿐이엇다 丸木三等三十二圓二十錢四等三十一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今日財界(十八日)

◆米(單位錢) ◆京城市中金塊價 ◆市中商品 [illegible]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金.白.銀.全 德 京城德力 代金引換販賣 地方注文 要送料元 (本局)3939 (京城)234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京城○番地) 電話本(2)三二一六番 代金引換販賣 地方注文 要送料先金

朝鮮紙物都賣 北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全北企業株式會社 電光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兼委託販賣

[market price tables for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京城絹布, 飴油沖價, 飯粕沖價, 大阪玉ヨ期先,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朝取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商品,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海外棉花 — figures [illegible]]